

## 한국기업의 발달\*

김 원 수\*\*

《目 次》

I. 머리말	1. 한국산업계의 현황
II. 한국기업발달전사	2. 대기업의 위상
1. 상회사의 설립	
2. 상업거래기반의 정비 확충	
III. 민족계기업의 발달	VII. 한국 기업성장요인과 발전 단계의 분석
1. 민족계 은행의 발달	1. 한국기업성장요인의 분석틀
2. 민족계산업기업의 발달	2. 포터에 의한 분석 사례
IV. 광복이후의 기업발달	3. 한국기업의 흥망과 정부의 역할
1. 광복 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	4. 한국기업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
2. 광복 이후의 기업설립	5. 한국기업의 발전단계의 분석
V. 대기업의 위상과 그 변천	VII. 맺는 말

### I. 머리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771,068개의 기업이 있었고 13,634,273명이 고용되어 사업체당 평균 4.92인이 취업하고 있었다.

〈표 1〉 사업체수와 종업원수의 추이

(단위 : 개, 명)

연도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당종업원수
1987	1,676,069	11,356,078	6.78
1991	2,118,247	12,628,068	5.96
1995	2,771,068	13,634,273	4.92

(자료, [1] 각년판, [13] p.13, [15] p.4

이들 기업이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내에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그러면 한국의 근대기업은 언제부터 비롯되었을까?

한국의 근대화에 관한 시기구분에는 개항(開港)이전과 개항이후로 보는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근대기업의 발생은 개화(開化)후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고 ([3]p.184 註.8) 다른 하나는 갑오경장이후에 근대기업이 등장하였다는 견해이다.

만약 개항을 전후하여 근대기업이 발생하였다는 견해를 따라 개항시점인 1876년의 10년 전후의 기간으로 본다면 근대기업의 발생시기는 1860-1896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876년에 일본과 새로이 맺은 병자수호조약(일명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개항되어 왜관(倭館)이 있었던 부산이외에 추가로 2개소의 개항이 지정되었고(1880년에 원산, 1883년에 인천)([5] p.425) 또한, 한국의 주요항구는 1897년에는 거의 다 개항되었기 때문이다. ([6] p.34) 따라서 한국의 근대기업의 발생을 개항기를 전후하는 시기로 본다면 1860 - 90년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오경장(1894 - 1986)을 기준으로 하면 1890년대로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개항기전후 10년간을 근대기업의 발생시기로 보기로 한다.

경영학상으로 볼 때 기업경영(Business Management)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영학의 기원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배적인 기업형태가 된 공업기업을 전제로 하여 이해하고 있다. ([7] p.168) 그러나 이의 기원을 상업기업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8] p.168)

본고에서는 근대기업의 발달과정을 공업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상업기업도 포함하여 이를 한국기업발달의 전사(前史)로서 고찰하기로 한다.

## II. 韓國企業 發達前史

### (1) 상회사의 설립

우리나라에서 상업상 회사조직의 기업형태인 상회사(商會社) 또는 상사(商事)회사가 나타난 것은 개항이후의 1880년대 초부터이다([9] p.273-274) 韓末에 설립되어 1884년 당시에 존속하고 있었던 민족계 상회사로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6社가 있었다.

<표 3>의 6사중 연무국과 혜상국은 정부에서 설립한 관영회사이며 나머지 4개사는 민영의 것이었다.

그후 1834년의 갑오개혁(갑오경장)까지 40여개의 민족계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었고, 이 시기에 설립된 회사는 관설이든 민설이든 일종의 특권을 부여받은 官許會社이었다. 개항이후에 설립된 商會社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4] p.408).

〈표 2〉 한말에 설립된 民族系 商事會社

기업명
長通社
保嬰社
長春社
廣印社
烟務局
惠商局

(자료 : [4] p. 408)

① 객주 여각이 설립한 상회사

군소상인중에서 재산을 축적하여 객주 여각(旅閥)이 된 이들은 경제적 독점을 통하여 巨商으로 성장하여 19세기에 이르러 특권도고(特權都賈)로 발전하였다([9] p.277) 이들은 회사 설립 자체를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결과 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일종의 특권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10] p.127)

조선후기의 보편적 상업 형태인 독점적 도매상업인 도고상업의 발달은 유통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업자본의 축적을 가져왔으며 그 자본의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영세상인의 몰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의 독점행위를 이용하여 물가를 올리기도 하고 탈세행위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5] p.359).

객주 여각이 설립한 商會社는 “商法會社”, “商會社”, “商會” 또는 “商法會所”등의 다양한 명칭을 가져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11] p.209).

예를 들면 1883년에 원산에 이들이 설립한, 상회사는 “商議所”라고 하였으며 1885년에 인천에 설립된 것은 “商會”라고 하였으며 1888년에 원산·부산항에 균평회사(均平會社)가 설치되었다. 인천항에도 균평회사가 설치되었으나 외국 상인의 반발로 1890년에 철폐되고 대신 부산항에 객주 “商法會社”가 설치되었다. 이는 일종의 동업조합으로서 그것은 당시 이미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었던 외국인의 회사(company)와 같은 합본회사(合本會社)<sup>1)</sup>는 아니었다 ([4] p.408-409).

② 一般商民이 설립한 商會社

이 회사는 객주와 일반상민사이의 이해의 대립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객주조합의 성격을 띤 상법회사와는 다른 것이다. 이들이 설립한 상회도 회사, 상회사 등 특별한 구별 없이 마

1) 주식회사임.

음대로 불리어졌으며 내용적으로는 공동 출자한 기업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합資는 전통적인 종래의 契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4] p.409)

〈표 2〉는 1883년에서 1894년 사이에 설립된 민영의 상회 또는 회사를 나타낸 것인데 이 중 평양의 대동회사 및 서울의 의신사는 당시 유력한 상회사이였다. 이들 상회의 대부분은 자본을 공동출자한 공동기업이며 그 활동 범위는 전국에 걸쳤으며 타도에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광범한 국내영업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곡, 배(布), 소가죽(牛皮)등의 국내재 화를 수집하여 대외무역에 종사하거나 선박운송업, 상업 등에 종사하였다(ditto). 그러나 이 회사를 수집하여 대외무역에 종사하거나 선박운송업, 상업 등에 종사하였다(ditto). 그러나 이

〈표 3〉 韓末의 私營商會・會社(官許會社) (1883 - 1894)

設立年度	商會・會社名	位置
1883年(高宗 20年)	大同商會(商會社)	平壤府
1884年	義信社(商會社) 順信昌商會社(創設)	京城 仁川
1885年	太平商會(太平社)(創設)	仁川, 萬石洞
1886年	大興商會, 濟興社 電警會社 信昌商會	京城 釜山 淳昌·潭陽等地
1886年	大同商會 博林商會	仁川
1887年	大安商會	天安
1888年	濟生會社 三山會社(創設) 電察會社(南沿會社로 改名) 海產會社 東航會社	釜山 釜山·絕影島
1889年	槐興商會(創設) 蓉湖會社(創設) 汽船會社(創設) 廣成會社	槐山 釜山 仁川
1890年	濟通會社	
1891年	永信會社	서울長通坊
1893年	陸運會社(創設) 保險會社(창설)	仁川 釜山
1894年	米商會社 農桑會社	麻浦

註 : 創設年代가 확실하지 않는 것은 開港後 오래되지 않아 設立된 것으로 1883年 前後에 出現되었을 것으로 推測됨. (자료 : [4] p.410)

러한 상회사에서는 근대적인 회사조직 예컨대 주식회사제도가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대다수는 특권을 부여받은 관허 회사이었다([4] p.410).

한성을 수도로 정했던 이조개국 초기에는 현재의 세종로에서 종로네거리에 이르는 운종가(雲縱街)에 정부가 공랑(公廊) 즉, 상점을 지어놓고 상인을 불러들여 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들 상인은 정부가 요청하는 물품조달의 의무를 맡았으며 그 대가로서 특정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인정받았는데 이들이 특권육의전(六矣慶)상인이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전특권을 가진 육의점상인과 그렇지 않은 객주 출신의 거상들인 사상(私商)과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18세기 말이 되면 이를 사상에 의한 난전(亂慶)을 정부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갑오개혁이후 육의전특권이 폐지되고([4] p.411) 통공발매령(通共發賣令)에 의해 사상의 난전을 허용하게 되었다.([6] p.136-137) 이에 따라 앞서 본 상회사의 특권적 성격도 크게 약화되었다.

15세기말에 전라도지방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장시(場市) 또는 장문(場門)은 조선후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8세기 중엽에는 1,000여 개소를 해아리게 되었다.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려서 인근주민들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 등을 교환하였고 보부상(褓負商)이라는 행상단이 먼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았다. 장시는 시장의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음식을 즐기며 각종 놀이도 구경하는 축제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장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통폐합 과정을 거쳐 점차 대형화해가서 전국적으로 시장권을 확대해갔다([5] p.355).

국내의 상업발달과 병행하여 17세기 중엽부터 청(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의주의 중강(中江)과 중국 봉황의 책문(柵門)등 국경을 중심으로 관무역과 사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비단, 모자, 약재, 말, 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품은 은을 비롯하여 가죽, 종이, 무명 등이었으며 19세기 이후로는 개성 인삼(홍삼)이 대종을 이루었다(ibid p. 355-356).

## (2) 상업거래기반의 확충

### ① 거래상품종류의 증가

한국의 전통적 시장은 18세기 조선시대후기에 새로운 전개를 하게 되었는데 상업거래의 증가 현상은 거래된 상품종류의 증가에서 엿볼 수 있다([12] p.422).

“1830년대에 편찬된 「林園十六志」에 의해 지방적으로 거래된 상품을 그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면 미곡, 두류, 맥류 등의 곡물, 무명, 삼배, 비단, 모시 등의 각종직물, 면화, 담

배 등의 특용작물 및 가죽, 철제품, 유기, 도자기 지류 등의 공산품 등이 있었다. 이 시기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대응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인삼, 채소, 담배 등을 중심으로 상업적 농업이 전개되고 공업에서는 전업(專業)적수공업이 전개되면서 일부에서는 선대제(先貸制)적 가내공업 또는 매뉴팩처(Manufacture)적 생산조직이 나타나고 그와 함께 농가의 부업적 가내 공업이 광범하게 증대되었다. 생산·공급능력의 증대 속에서 거래상품의 양과 종류가 확대되었다.

## ② 수공업기반의 확충

농민들이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하는 물품은 곡물, 무명, 모시, 베, 명주 등의 옷감류와 도기·종이 등이었다. 이러한 물품들은 공납품으로 국가에 바치기 위해 제조되기도 하였지만 잉여생산품은 판매하여 수익을 보태기도 하였다.

전문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챙이”라 불렀는데 한문으로는 장인(匠人) 또는 공장(工匠)이라고 썼다. 고려 시대에는 소(所)의 주민이나 노비들이 수공업을 주로 맡았으나 조선시대에는 천민들이 대거 해방되어 양인장인(良人匠人)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만큼 전문 수공업자의 지위가 향상되었다([5] p.257).

노비장(奴婢匠)의 경우에는 제조의 자유가 없고 주인의 요구에 응해 수공업에 종사했지만 양인장(良人匠)은 일단 국가에 이름을 등록하고 자유스럽게 제조업에 종사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수공업장을 만들어놓고 의식주생활에 필요한 대중적 소비품이나 농기구류, 혹은 양반의 고급가정용품을 생산하여 상인에게 파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말하자면 민간수공업자이다. 조선 초기에는 민간수공업보다는 관청에서 운영하는 관청수공업의 더 컸다. 이들 공장은 관장(官匠) 또는 공장(公匠)이라 불리었다.([5] pp.257-258) 관장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과 지방관청에 소속된 외공장(外工匠)의 두 부류를 나누어졌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경공장의 수는 2800여명으로 30개 관청에서 129종의 일을 맡았다. 외공장의 수는 3500여명으로 27종의 직종이 있었다(ibid p. 258-259).

관청수공업 중에서 특기할 것은 교서관(校書館)의 인쇄능력이다. 여기에는 146명의 인쇄계장인들이 소속되어 책을 찍어냈는데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이만한 규모의 인쇄소가 없었다.

### III. 민족계기업의 발달

#### 1. 민족계은행의 발달

##### (1) 민족계은행의 연혁

1896년에는 한국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朝鮮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순수한 민간주식회사이었다([6] p.97). 뒤이어서 1897년에 현재의 조홍은행의 전신인 한성 은행이 창설되었고 1903년에는 공립한성은행으로 개편되었다. 1911년 정관의 일부를 개정하여 조선인이 아니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6], p.96). 그러나 1920년에 정관이 다시 개정되어 일본인의 주식취득이 길이 열리고 중역이 되기도 하였다. 또 그후의 금융공황의 발생과 병행하여 한성은행은 급속히 일인예속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성은행은 일본인의 간접적인 감독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배로 옮겨지게 되었다(ibid, p.98).

1899년엔 현 상업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되었다(ibid., p.69) 이후 한흥은행, 제국은행(국립대한은행)등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말에 설립된 이들 민족계은행의 대부분은 한말의 정계의 불안, 경영기술의 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개점 후 몇 년이 못 가서 폐업되었다. 1905년의 금융공황으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도 크게 타격을 받았으나 정부의 대하금(貸下金)으로 간신히 도산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1906년에는 한일은행(동일은행)이 설립되었고([4] p.411). 1918년에는 일본계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다.

〈표 4〉 민족계은행의 연혁

기 업 명	설립 년도	자료원
조선은행, (한국최초의 근대적 은행, 순수민간주식회사)	1896	(6) p.71
한성은행(현 조홍은행의 전신)	1897	(13) p.13
대한천일은행(현 상업은행의 전신)	1899	(6) p.69
한성은행 → 공립한성은행 개편	1903	(6) p.78
한일은행(동일은행)	1906	(4) p.418
제일은행	1929	(13) p.13
한일은행	1932	(13) p.13

##### (2) 민족계지방은행의 연혁

한성, 평양, 대구, 전주, 진주, 광주, 충주, 해주, 鏡城, 공주, 함흥 등지에 11개의 농공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같은해에 漢湖, 함경, 평안, 경상, 전주, 광주 등 6개 농공은행으로

병합·개편되었다([6] p.120).

한일합방이후 지방은행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1912년에는 구포은행이 설립되었다. 이는 1908년에 한국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구포저축주식회사가 개편된 것이다. 이 회사는 구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물산 객주와 지주 70여명이 합자하여 자본금 2만 5천엔으로 창립하였고, 1911년 이 회사의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상반기의 이익배당이 18%나 되었다 한다([6] p.109).

구포은행은 1915년에 경남은행으로 개칭하면서 본점을 부산으로 옮겼다(ibid. p.103).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1928년에 대구 은행과 합병하여 새로이 경상합동은행이 발족하게 되었다(ibid. p.114).

〈표 5〉 민족계지방은행의 설립변화 동향

기 업 명	년도	자료원
구포저축주식회사 → 구포은행으로 개편	1908	(6) p.104
경성융흥(隆興)주	1908	(4) p.418
구포은행	1912	(6) p.103
대구은행	1912	(6) p.103
호서은행	1913	(4) p.103
동래은행	1918	(4) p.422
주일(主一)은행	1918	(6) p.422
호남은행	1918	(4) p.103
해동물산주, 1923해산	1919	(4) p.123
목포창고금융회사	1919	(6) p.123
삼남은행	1919	(4) p.103
경일(慶一)은행	1920	(6) p.422
개성(開城)은행	1920	(4) p.422
호남은행	1920	(4) p.423
경성금융주	1920	(4) p.424
평북은행	1920	(4) p.423
해동은행	1920	(4) p.424
호남은행	1920	(6) p.126
경성곡물신탁주	1921	(6) p.158
개성무진주식회사	1927	(6) p.221
구포은행 + 대구은행 → 경상합동은행	1928	(6) p.114
호남은행, 동래은행 흡수합병	1933	(6) p.129
호남은행, 동일은행에 흡수합병, 총독부특별검사	1942	(6) p.132

1912년에는 대구은행, 1913년에는 호서은행, 1919년에는 상남은행, 목포창고금융주식회사, 1920년에는 개성은행과 경일은행, 경성금융주식회사, 평북은행, 해동은행, 호남은행 등이 설립되었는데 호남은행은 대표적인 민족은행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 은행의 설립을 촉진한 요인으로는 ① 광주농공은행이 조선식산은행의 창립과 더불어 이에 흡수되어 버렸고 ② 3.1운동이후 한국민족주의가 그 운동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4] P.126). 이 은행은 1933년에 동래은행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영업지역을 경남지역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당국은 호남은행을 강제 합병하도록 강요하여 1941년에 특별검사반을 파견하여 50여 일 간의 감사 끝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었다 한다([4] P.132).

- ① 대체적으로 업무처리는 괜찮으나
- ②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
- ③ 일본인을 채용하지 않는 점
- ④ 일본인 및 그 단체에는 일체 응자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배일기관(排日機關)으로 단정치 않을 수 없다 (ditto)고 하여 1942년에는 최후통첩을 받고 동일 은행에 흡수 · 합병을 강요당하고 말았다.

## 2. 민족계 산업기업의 발달

### (1) 공업기업의 발달

이용익(李容翊)은 1817년 왕실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의 책임자인 내장원경(內藏院卿)에 발탁된 이후 그는 종래 농상공부에 속해있던 광산을 1898년 이후 모두 궁내부로 이관시키고 궁내부소속의 광산과 삼포(蓼圃)를 엄격히 관리하여 왕실수입의 증대를 기도했다. 광산개발의 경우 재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고 그들이 협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성, 지원하고, 삼포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관영회사인 삼정사(蓼政社)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내장원에 소속된 전매회사이다([6] p.23-24).

현대의 조폐공사격인 전환국(典圜局)이 1883년에 설치되었다. 그 후 인천전환국이 개국되었으나, 1898년에 폐쇄되었고 1900년에는 용산전환국이 개국되었다([6] p.24-31).

1900년에 이용익은 종래 농상공부의 관장하에 있던 경부 · 경인양철도의 감독업무를 궁내부의 철도원으로 이관시키고 같은 해 9월에는 경의 · 경원 양철도의 궁내부직영안을 제출 · 재가받아 서북철도국을 설치하고 총재에 취임하여 경의선의 부설에 착수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공사가 부진하였고, 1904년 노일전쟁과 더불어 군용철도의 구설 하에 일본에 그 부설권이 넘어가고 말았다.([6] p.37)

1882년의 갑신정변, 1894년의 갑오개혁이후 관영공업분야에서 근대공업 건설에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예를 들면 1902년의 한성전기회사, 1903년의 총기제조소 설치계획, 1904년의 인쇄공장, 1906년 마포 벽돌공장, 영등포 토판제조공장 등이 설립되었다([4] p.419).

이용익은 궁내부소속하에 각종의 근대공장을 건설하였다. 1902년 모범 양잠소를 설립하여 근대의 견직기술을 습득시켰고 또 각도에 공업전습소를 설립하여 염직, 직조, 제지, 금공(金工), 목공(木工)의 근대기술자의 양성에 힘썼다. 그해 사기(沙器)제조소를 건립하였다. 1903년에는 총기제조소를 설치코자 준비를 진행시켰으나 이듬해 노일전쟁의 발달로 중지되었다.([6] p.37)

## (2) 민간기업의 발달

철도는 산업의 동맥이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표 6>에서 보듯이 대부분 1900년대 초에 개통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한국최초의 철도들은 모두 일본인의 손에 의하여 부설되고 그 것도 예외 없이 노일전쟁을 계기로 작전상의 필요를 구실삼아 일본주둔군의 임시군용 철도감부에서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본의 한국통치가 한국근대화에 공헌한 점으로서 철도건설을 들고 있다.

<표 6> 한국 철도의 개통시기

노 선 명	개 통 년 도
경인선(인천 - 노량진)	1899
경인선(인천 - 남대문)	1900
경부선	1909
마산선(삼량진 - 마산)	1905
경목선(호남선)	합방이후
경원선	합방이후

(자료 : [6] p. 44에 의함)

그러면 한국의 기업가들은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일까? 한국의 기업가들도 철도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로 좌절되었다 ([6] p.44-45).

한말에 민간에 의한 철도 부설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최초로 한국 민간인회사로서 철도부설에 나선 것은 부하(釜下) 철도회사이지만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경부철도가 개통되어 부산에 수송되는 물산(物產)의 집산지이었던 구포와 하단포의 물류상의 중요성이 낮

아셨기 때문이다.([6] p. 108)

1899년에는 프랑스회사의 경의선 부설특허가 무효가 되자 이 허가를 이어받은 대한철도회사(경의선, 경원선, 함경선), 1902년에는 영남지선철도회사(삼마선)가 설립되었고 철도운송과 관련되는 서비스제공회사로서 1899년에 철도용달회사, 1900년에 경부철도 역부(役夫)회사 및 1904년에 경목선운수회사등이 설립되었다.

### (3) 개항기전후의 기업발달

개항기<sup>2)</sup>는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약 35년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역사상 이 시기를 중요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이 시점이 근대화의 출발점이며 특히 일본에 종속적 지위의 식민지로 전락해 갔던 시기이기 때문이며 또한 한국의 자본주의적경제체제는 1879년 강화도 조약체결을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3] p.197 및 p.235).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어떠한 민족기업이 얼마나 설립되었는가? 이하에서는 편의상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에 따라 민족기업의 설립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1876 - 1910

1876년은 개항을 촉구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해이고 1910년은 군욕적인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해이다.

이 기간동안엔 <표 7>에서 보듯이 50여개의 민족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육상운송업이 14개사, 해상운송업이 4개사, 합계 18개사이며 다음이 농림업으로서 인삼전매회사를 포함하여 10개사가 있다.

이 이외에 광업이 6개사, 섬유업이 4개사, 건설재료업이 2개사, 건축, 보험, 사기, 도자기,

<표 7> 민족계산업회사 설립동향(1876 - 1910)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 료 원
1884	운송	기선회사, 관영운송사	[4] p.410
1893	운송	육운회사, 인천	[4] p.410
1893	보험	보험회사, 부산	[4] p.410
1894	농림	농상(農桑) 회사	[4] p.410
1897	운송	마차회사	[4] p.411
1897	운송	마차회사(대자본주 = 귀족, 관료많음)	[4] p.414
1897	광업	내장원, 이용의, 왕실재산관리기관	[6] p.21
1897	해운	도진, 渡津, 회사, 내장원 직영사	[6] p.36
1897	해운	동래상선회사, 이용익권장으로 설립	[6] p.36

2) 이 기간을 개화기로 보기도 한다([3] p.197).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 료 원
1897	해운	인천상선회사, 이용익권장으로 설립	[6] p.36
1897	의약	동화약품	[13] p.13
1897	섬유	대한직조권업	[28] p.10
1899	운송	이운사, 利運社, 관영운송사	[4] p.411
1899	농림	삼정사, 이용익, 삼포관리	[6] p.23
1899	농림	삼정사 = 전매회사, 이용익, 공사합동기업	[6] p.225
1900	운송	대한협동우선회사, 안영기	[4] p.411
1900	운송	인천우선(郵船) 회사	[4] p.411
1900	운송	인한유선(仁漢輪船) 주	[4] p.411
1900(*)	농림	남초(南草) 회사	[4] p.412
1900(*)	농림	양진회사	[4] p.412
1900(*)	섬유	저마제사(苧麻製絲), 회사	[4] p.412
1900	광업	해서철광회사	[4] p.412
1900(*)	운송	상물(獵物) 회사	[4] p.412
1900	광업	강원도 매광(媒鑛) 합자회사	[4] p.412
1900(*)	광업	구성수철(水鐵) 회사	[4] p.412
1900	광업	흡통매광(翕通媒鑛) 합자회사	[4] p.412
1900(*)	농림	만심광화(蔓夢廣化) 회사	[4] p.412
1900(*)	농림	종삼(種蓼) 회사	[4] p.412
1900	운송	인천상선회사, 이용익권장설립	[6] p.36
1901	운송	통운사	[4] p.411
1902	전기	한성전기주식회사	[4] p.419
1902	농림	모범양잠소, 이용익	[6] p.36
1902	사기	사기제작소, 이용익	[6] p.37
1902	섬유	기업적면직업체, 김덕창 1921→동양염직에 합병	[6] p.167
1903	?	통동(通同) 회사	[4] p.411
1903	운송	의령상선회사	[4] p.411
1903	해운	종선(從船) 회사	[4] p.411
1903	광업	수안금광 합자회사	[4] p.412
1903(*)	건설	청축(請築) 회사	[4] p.412
1903(*)	전기	한성전기주식회사	[4] p.412
1903	섬유	대한제국인공양잠(人工養蠶) 합자회사	[4] p.412
1903(*)	?	전권(典卷) 회사	[4] p.412
1903(*)	음식료	신석담배(煙草) 합병회사	[4] p.412
1903	기계	총기제조소, 설치준비, 이용익	[6] p.37
1903	기계	총기제조소, 설치준비, 이용익	[6] p.37
1904	인쇄	인쇄공장	[4] p.419
1904	운송	운송회사(경부선)	[6] p.45
1905	농림	조선농업주식회사	[4] p.416, 42
1905	농림	조선농업주식회사	[4] p.418
1906	건재	마포 벽돌공장	[4] p.419
1906	건재	영동포토관 제조 공장	[4] p.419
1908	도자기	평양 도자기 회사, 남강 이승훈	[6] p.257

※ 설립연도 미확인분임

음식품 등 업종이 각 1개사이다.

## ② 1910-1919

한일합방이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동안에는 39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상업이 9개사, 농림업이 8개사, 무역업과 섬유업이 각 4개사인데 섬유업중 1911년에 창업된 경성직유(織紐)주식회사는 1917년에 김성수에 인수되었다. 이외에 제혁업 2개사가 설립되고 운송업, 전기업, 제지업·출판업이 각 1개사씩 설립되었다.

1911년부터 1919년의 기간동안에 조선인회사는 27개사에서 36개사가 증가한 63개사로 늘었으나 일본인기업은 109개사에서 180개사가 증가한 289개사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려 3배의 증가이다([4] p.421).

1910년말 현재 한국에 설립된 회사중 일본인 소유는 71.7%이고 조선인 소유는 17.8%, 공동소유는 10.5%이었다([6] p.10).

〈표 8〉 민족기업 설립동향(1910 - 1919)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11	섬유	중앙상공주, 1920년대존속	[4] p.425
1911	섬유	경성직유주식회사	[4] p.418
1911	섬유	경성직유주식회사, 직물제조업자 규합창업	[6] p.168
1911	섬유	경성직유회사, 방직업계 최초의 주식회사	[6] p.178
1912	상업	상업 개성, 개성사 합병회사	[6] p.214
1912	상업	상업 개성, 합자회사 영신사	[6] p.214
1912	운송	조선우선주식회사설립, 한상용	[6] p.100
1913	농림	고려삼업주	[6] p.217
1914	상업	안희재, 백산상회, 1917. 합자회사로 개편	[6] p.198
1914	상업	주, 공의사(共益社), 1920년대존속	[4] p.424
1916	무역	대창무역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4
1916	무역	백유수, 대창무역주	[6] p.141
1917	피혁	대전피혁	[13] p.13
1917	섬유	경성직유회사, 김성수인수	[6] p.184
1917	전기	개성, 개성전기주식회사, 김정호 등	[6] p.214
1917	전기	개성전기주, 김정호, 한국최초의 전기회사	[6] p.217
1918	상업	해주물산주	[4] p.422
1918	상업	상업 범성포해륙물산주	[4] p.422
1918	제지	조선지(朝鮮紙)주식회사	[4] p.422
1918	농림	학림농림(農林)주	[4] p.422
1918	농림	개성, 고려삼업사	[6] p.214
1918	무역	공동(共同)무역주	[4] p.422
1918	피혁	조선제피(製皮)주	[4] p.422
1918	상업	경성포목상조합장, 박승직	[6] p.159
1918	농림	고려삼업주	[6] p.227
1918	상업	충남상업주	[4] p.422
1918	농림	합자회사, 고려삼업(蓼業)사	[4] p.422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18	농림	고려삼업주, 개성	[6] p.214
1919	무역	동양물산주, 김윤면	[6] p.149
1919	무역	공동무역주식회사	[4] p.424
1919	무역	조선무역주, 백산합자 → 주식회사개편	[4] p.425
1919	농림	호남산업주식회사	[4] p.422
1919	무역	동양물산주	[4] p.425
1919	농림	조선인삼(人蔘)주	[4] p.422
1919	섬유	경성방직, 창업명=경방	[18] p.7
1919	상업	백산상회 → 백산무역주로 개편, 안희재	[6] p.199
1919	섬유	경성방직, 민족기업의 전형	[6] p.188
1919	상업	주, 동익사(東益社)	[4] p.425
1919	금융	주, 협동공사(協同公司)	[4] p.425
1919	출판	한성도서주식회사	[4] p.422
1919	섬유	조선제사주식회사, 1920년대 존속	[4] p.426
1919	섬유	경성방직주, 1920년대 존속	[4] p.426
1919	섬유	경성방직설립	[6] p.181

〈표 9〉 주요기업설립(1920 - 1945)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20	농림	남강, 한몽산업주식회사	[6] p.236
1920	섬유	대농 ← 금성방직인수	[18] p.24
1920	인쇄	대동인쇄주	[4] p.423
1920	성냥	동아성냥(鱉寸)주	[4] p.423
1920	무역	성창기업	[13] p.13
1920	요업	송도도기주식회사	[6] p.216
1920	운송	송도화물주	[6] p.222
1920	인쇄	영남인쇄주, 1920년대 존속	[4] p.426
1921	상업	조선관염(官鹽)판매주	[4] p.425
1920	음식	조선양조(釀造)주	[4] p.423
1920	비누	조일비누(石脣)주	[4] p.423
1920	출판	주, 이문당(以文堂), 1920년대 존속	[4] p.426
1920	섬유	태창직물공업주식회사	[6] p.146
1920	출판	한성도서주, 1920년대 존속	[4] p.427
1920	상업	화신상사주 → 화신산업주개명	[4] p.435
1920	상업	화신연쇄점 제1회 350점개점	[4] p.435
1921	상업	경성식산주, 1920년대 존속	[4] p.424
1921	섬유	김연수, 남만주방직주설립	[6] p.186
1921	보험	조선생명보험주, 1920년대 존속	[4] p.427
1921	보험	조선회재해상보험주	[6] p.100
1921	부동	주, 금계사(金鶴社), 1920년대 조속	[4] p.424
1922	요업	고려요업(窯業)주식회사	[4] p.423
1922	무역	광원(廣元)무역주	[4] p.423
1922	인쇄	대동인쇄주, 1920년대 존속	[4] p.426
1922	고무	대륙고무공업주식회사, 1920년대 존속	[4] p.426
1922	신타	동아홍업주식회사, 1920년대 존속	[4] p.424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22	보험	동양화재보험주	[13] p.13
1922	신탁	북선산업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6
1922	보험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6] p.100
1922	공예	주. 조선미술품제작소, 1920년대존속	[4] p.426
1922	상업	화신상사주 ← 화신연쇄점 + 화신무역 + 선일지풀	[4] p.435
1923	부동	경성홍산주, 1920년대존속	[4] p.427
1923	섬유	대농 ← 금성방직인수	[18] p.11
1923	농림	만주실업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6
1923	신탁	조선식산신탁주, 1920년대존속	[4] p.424
1924	섬유	대창직물주식회사, 해전직물주개명	[6] p.146
1924	섬유	삼호공업사, 정재호	[60] p.89
1924	인쇄	선광인쇄주 ← 선광당인쇄소	[4] p.435
1924	음식	조선맥주	[13] p.13
1924	부동	조선토지주, 1920년대존속	[4] p.427
1925	상업	삼성상화설립	[21] p.15
1925	출판	조선도서주, 1920년대존속	[4] p.427
1925	부동	주. 영홍사(水興社), 1920년대존속	[4] p.427
1925	화장	태평양화학	[18] p.11
1926	신탁	경성홍업신탁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4
1926	음식	대선주소	[13] p.13
1926	상업	동화, 東華, 산업주	[6] p.101
1926	상업	삼성물산공사설립	[3] p.8
1926	의약	유한양행	[13] p.13
1927	상업	삼성상화설립, 대구, 잡화무역업, 제분제면업	[21] p.26
1927	제약	중외제약	[13] p.13
1927	운수	히노데, 日出, 자동차회사인수, 트럭20대	[21] p.24
1928	상업	경남광업(京南廣業)주	[4] p.423
1928	농림	동아식산주, 1920년대존속	[4] p.426
1929	음식	박승직, 조선맥주회사, 동양맥주자사	[6] p.158
1929	제약	우유산업	[13] p.13
1930	음식	개성양조주	[6] p.216
1930	운송	서선상사(西鮮商事)주	[4] p.423
1931	상업	선일지풀주, 1920년대존속	[4] p.424
1931	무역	유창물산주, 정재호	[60] p.89
1931	건설	조선도시공영주	[6] p.101
1932	상업	삼성상회설립	[3] p.6
1932	제약	종근당	[13] p.13
1933	음식	조선양조주, 인수	[60] p.89
1933	음식	진로, 창업명=진천양조상회	[13] p.13
1934	상업	삼성물산	[13] p.13
1934	상업	삼성상회, 주식회사개편	[21] p.26
1934	농림	춘포(春圃)사	[6] p.216
1935		개성, 개성상사주식회사	[6] p.221
1935	전기	금호전기	[13] p.13
1935	섬유	김연수, 삼수사설립, 1923 삼양사로 개칭	[6] p.186
1935	무역	대성무역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4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35	섬유	조선제사(製絲)주	[4] p.423
1935	상업	주. 모범매약상회, 1920년대존속	[4] p.424
1935	섬유	태창방직공업주식회사, 백낙승	[60] p.89
1935	섬유	혜창직물주. 백윤수	[6] p.140
1936	운수	개성, 개성운수창고주	[6] p.221
1936	농림	개성삼업주	[6] p.216
1936	농림	관동산업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6
1936	금속	럭키금속	[13] p.13
1936	상업	백용상회, 백낙승	[60] p.89
1936	파혁	조광파혁	[13] p.13
1936	정미	협동정미소설립, 정현동 + 박정원	[21] p.15
1937	상업	공영사주, 이정립	[60] p.89
1937	기계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설립	[4] p.434
1937	조선	한진중공업	[13] p.13
1938	상업	개성, 송도식산주	[6] p.221
1938	상업	대동홍업주설립, 박홍식	[4] p.435
1938	상업	삼성상회설립, 대구, 잡화무역업, 제분제면업	[21] p.26
1938	상업	주.화신상회, 동아백화점매수합병	[4] p.435
1939	운송	대한통운	[13] p.13
1939	건설	동아건설	[22] p.23
1939	음식	동양양조주, 1920년대존속	[4] p.426
1939	섬유	백윤수, 대창직물주 설립, 직물가공부	[6] p.145
1940	유지	삼공유지합자, 김성곤	[60] p.89
1940	상업	선일지물주설립, 박홍식	[4] p.435
1941	제약	대웅제약	[13] p.13
1941	제약	삼성제약	[13] p.13
1941	제약	일동제약	[13] p.13
1941	상업	주.화신상회 → 주.화신개명	[4] p.435
1941	상업	학림홍산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5
1941	타이	한국타이어	[13] p.13
1941	상업	화신상회매수 → 주.화신상회설립	[4] p.435
1942	제약	제일약품주, 1920년대존속	[4] p.424
1942	음식	조선양조주, 인수	[21] p.26
1944	자동	기아자동차	[13] p.13
1944	자동	기아자동차, 창업명 = 경성정공	[17] p.7
1944	기계	대우중공업	[13] p.13
1944	상업	박승직상점, 주식회사개편	[6] p.158
1944	자동	삼천리호자전거 김철호	[22] p.16
1944	자동	삼천리호자전거, 김철호	[22] p.16
1945	건설	대림산업, 창업명 = 부림상회	[18] p.7
1945	제약	동아제약	[13] p.13
1945	화장	박승직, 박가분제조본포, 37폐업	[6] p.159
1945	섬유	조선견물(綢物)주	[4] p.423
1945	섬유	조선견직주식회사, 1920년대존속	[4] p.426
1945	운송	한진상사	[18] p.11
1945	섬유	해동직물주, 백낙승	[6] p.89

### ③ 1920 - 1945

그러면 3.1운동이후의 기업의 발전은 어떠한가? <표 9>는 3.1운동이후 1945년 광복기까지의 기업설립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1911년에는 조선내에서의 근대공업의 건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된([6] p.11). 조선회사령이 폐지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조선회사령제정의 구실은 다음과 같았다.([16] P.281)

“조선인은 회사조직에 관한 지식이 매우 유치하고 보통 회사설립을 청원하는 자는 무언가 독점적 특허를 받으려 하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력이 약하여 일화천금의 폭리를 얻으려고 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정부(=총독부)는 이익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였다”

박경식은 조선회사령의 제정의도는 “조선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지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의 자본주의적공업의 발전을 저지하고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적식량 원료공급지로 머물게 하려는데 있었다”([17] P.105)고 지적하고 있다.

3.1운동이후 민족기업이 급격히 증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기업설립의 여건이 다음과 같이 성숙하였기 때문이다.([4] P.430)

⑦ 회사령의 폐지로 인해 제도적으로 민족기업설립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⑧ 토지조사사업의 완료결과 기업설립을 위해 지주(地主)자본이 기업자본에 동원될 수 있었다.([6] P.11).

⑨ 그간의 교육의 보급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생리를 이해하는 다수의 인사가 배출되어 이들이 3.1운동이후의 민족 기업설립 뿐 때문에 실업계에 진출하였다.

⑩ 3.1운동이후에 전개된 물산장려운동 등의 영향으로 면직물을 중심으로 한 제품시장의 개척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성공률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3.1운동이후 10년이 지난 1929년의 민족별 회사수를 보면 민족회사는 20.5%, 일본인회사는 71.7%, 한일합동회사는 9.3%, 기타 외국인회사 0.1%로 민족계회사의 비중이 1910년에 비해 2.7% 증가하고 있다.([6] p.10).

그런데 민족계기업의 규모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여 <표 10>에서 보듯이 자본금 규모별로 볼 때 30만엔 미만의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체로 말하여 일제시대의 민족기업은 식민지지배라는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계속 성장하여 왔다. 비록 민족기업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는 민대식계, 김연수계, 박홍식계 등과 같이 이른바 조선재벌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도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

(표 10) 規模별·民族別 · 工業會社數 및 挿入資本金(1993년) (단위 : %)

規 模	社 數				資 本 金			
	朝鮮人社長	日人社長	外國人	計	朝鮮人社長	日人社長	外國人	計
全工業會社	33.7	66.1	0.2	100.0	6.5	86.3	7.2	100.0
5萬圓 未滿	36.9	63.1	0	100.0	35.0	65.0	0	100.0
5萬 ~ 10萬圓	22.7	74.5	1	100.0	23.5	75.8	0.7	100.0
10萬 ~ 30萬圓	22.7	77.3	0	100.0	21.5	78.5	0	100.0
30萬 ~ 50萬圓	8.3	91.7	0	100.0	9.6	90.4	0	100.0
50萬 ~ 100萬圓	20.0	80.0	0	100.0	18.8	81.2	0	100.0
100萬圓 以上		91.7	8.3	100.0	-	90.0	10	100.0

태 하에서 1945년 8월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제말기의 민족기업가는 일제와 타협을 하면서도 민족주의정신을 잊지 않았던 기업가, 일제와 타협을 아니하였던 민족기업가 및 일제와 깊숙이 관계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반민족적 기업가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4] p.438).

<표 9>는 3.1운동 직후인 1920년부터 광복이 된 1945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설립된 기업의 일람표이다. 이에서 보면 앞의 기간에 비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공업의 발달이 소비재중심의 경공업으로부터 중공업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무렵에 이와 같은 산업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날 두산재벌의 창시자인 박승직(朴承稷)은 한국의 재래식 화장분을 기업화하여 박가분제조본포를 설립하였으나 1937년에 폐업되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1944년에 박홍식에 의해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의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후세에 승계되지 못하고 말았다.

#### IV. 광복이후의 기업발달

##### (1) 광복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3] p.204)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한국경제는 독자적인 경제운영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1950년 6월 뜻하지 않은 6.25 동란의 발발로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기까지의 만 3년 간에 한국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다. 특히 동란초기의 3개월간 북한군은 남한의 전지역의

80% 이상을 점령하고 있었으니 그 간의 국토와 산업의 황폐화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동란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산업시설은 생산시설 42%, 건설중인 공장과 손이 44%이었다. 그 중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섬유산업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산업은 원래 경인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의 공장은 전파되었고 그 밖의 지역에 산재해 있던 공장들도, 釜山, 大邱地域에 있던 공장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공장이 없었다.

政府樹立후 산업의 각 분야에서 발전적 추세를 보이던 韓國經濟는 6.25 動亂으로 발전은 저지되고 이후 심한 混亂에 빠지고 말았다. 1949년에 9.7%의 成長率을 보이던 韓國經濟는 1950년에 - 15.1%로 성장률이 급감했고, 動亂前後 莫大한 원조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에는 - 6.1%로서 마이너스 성장 추세는 50年代의 前半期에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6.25動亂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生產施設의 破壞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戰費調達을 위한 막대한 財政支出은 인플레를 유발시켰다. 1950년 7월 이후 정부는 전쟁 遂行을 위하여 收支均衡의 예산을 포기하고 每月 歲出豫算을 策定, 執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해 연말에는 20여억원의 財政赤字를 示顯했다. 이에 더하여 UN軍 貸與金 10여억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러한 赤字 財政執行은 韓國銀行으로부터 非常資金貸與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銀行券 發行額은 급증했고 이로 인한 物價昂騰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952년 말에는 동란 전의 물가에 비해 도매물가는 18배, 小賣物價는 24倍로 激增 했다.

한편 전쟁복구경기를 타고 건설업도 활기를 띠었고 현대건설(정주영)을 위시하여 대동공업(이용범), 극동건설(김용산), 대림산업(이 재준), 중앙산업(조 성근)등이 연이어 설립되었으며, 이들 5개 사는 정부발주 주요공사를 독점하여 세칭 "자유당 5인조"로 불리기도 했다. 수주경기에 힘입어企業은 급속도로 팽창되어 갔다. 三星, 삼호, 동양, 삼양사, 화신, 럭키, 대한, 개풍, OB등은 이미 財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이른 바 10대 財閥로 불리어졌다. 1957년경에 진입하면서 전쟁경기와 전시인플레도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정부는 시중은행의 불하방침을 발표했다.([3] p.202)

## (2) 광복이후의 기업발달

이하에서는 공업화이후의 한국기업의 발전사를 <표 11>과 같은 4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표 11〉 광복이후 한국기업발전사의 시대구분

제 1기 : (1945 - 1960) ~ 재벌태동기 ~ 삼분(三粉)시대
제 2기 : (1961 - 1971) : 경제개발계획착수시기 ~ 재벌천국 도래
제 3기 : (1972 - 1979) : 중화학공업 육성기 및 수출촉진시기
제 4기 : (1980 - 1997) : 재벌순위안정기
제 5기 : (1998 - ) : 구조조정기 <sup>3)</sup>

(자료 : [20] p.15)에 의함)

## ① 제 1기 (1945 - 1960)

이 시기는 광복이후 자유당정권 시절까지의 재벌태동기이다.

광복이후 1961년의 경제개발기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총 116개사이다. 이에서 업종별 설립 동향을 보면 섬유업의 17개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상사의 14개사, 건설의 7개사, 제당의 5개사, 금융 및 보험 각 4개사, 제철 및 타이어 각 3개사, 항공 및 매스컴(통신 및 신문) 각 2개사, 1개사씩 설립된 업종은 아주 다양하여 레저(호텔) 목재, 부동산, 비료, 석유, 유리, 중공업, 제약, 전선, 전자, 증권, 해운 화약 및 화장품 업종 등의 기업이 창업되었고 이 기간동안에 삼성은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조선양조, 동거양조 등을 인수 합병하였고, 한국 특수강을 인수한 동국제강이 창업되었다([22] p.293). 귀속 재산인 가와이(河合)제약소를 인수한 대한간유제약공업사가 창업되고 이는 1997년에 대한 비타민 화학공업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조선간유제약공업사로 개칭되었다가 후일 대웅제약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24] p.265).

이 시기는 제당, 제분, 시멘트 등 소위 삼분(三分) 산업이 해방이후의 물자부족의 틈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팔려 소위 삼분재벌들이 재벌형성의 초기를 하려하게 수놓았다. 삼성(故 이병철), 동양(故 이양구), 삼양사(故 김연수)등은 제당 및 시멘트로, 삼호방직(정재호)은 방직으로 자본축적을 하였다([18] p.22).

1963년 소위 삼분의혹으로 불리는 정경유착에 의한 파동이 일어났다. 이는 소위 삼분 사재기소동으로서 삼분이 투기대상이 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이 생기자 매점매석을 통해 삼분산업이 폭리를 취해 치부를 하였다. 제당의 경우 국제원당시세의 폭등과 품귀를 통한 매점매석으로 약 20억의 폭리를 취하였다 한다. 1962년엔 추곡이 흉작인데다 미정부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 삼분산업의 원료인 미잉여농산물공여를 연기하여 삼분의 수

3) 이 단계는 편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한 것임.

급이 꽉박하였다는 배경이 있었다. 이 문제가 정치 문제화되자 정부의 국정감사 보고서는 세무사찰의 결과 제일제당을 위시한 17개업체에 대해 추징세액 3천 880만원, 별과금 39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여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삼분산업이 공업화초기 국내산업의 종주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의혹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도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적은 사건중의 하나이다.([19] P.15)

해방당시의 기업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귀속재산의 불하와 마카오, 홍콩, 미국 등지 외의 무역이었다. 일본이 패전 후에 남기고 간 재산인 귀속재산은 미군정부에 의해 몰수·관리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 새정부에 이관되었다. 귀속재산은 일부 미군정 하에서도 불하되었으나 본격적인 불하는 자유당정권에서 이루어졌고 정권과 밀착한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우선적이었으며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또 대개 장기상환, 특혜금융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당시 악성 인프래과정에서 귀속재산의 불하는 공짜나 다름없는 이권이 부여되었다. 귀속재산의 연고자들은 그 후 해당기업을 불하 받아 각각 동양맥주(OB : 박두병), 한국화약(김종희)은 조선유지, 선경(최종건), 대한중기(김연규), 조선견직(김지태), 삼호그룹(정재호) 등을 일으키는 모태가 되었다. 또한 귀속재산과 관련이 있는企業으로는 동양시멘트(이양구), 전방(김용주), 대한전선(설경동), 동아제분(최성모), 크라운맥주(민덕기), 대한통운(최준문), 삼영제과(동립산업), 부산제빙공장(최성모), 동일방식(서정익), 대한방직(설경동) 등이 있다. 또한 대구에서 三共油脂를 경영하던 김성곤은 조선직물의 건물과 당시 영등포 등에 야적된 귀속방직 기계를 불하 받아 금성방직을 설립했으나 귀속재산의 緣故者는 아니었으며, 그는 미군정과 직접 교섭하여 불하 받아왔다([3] P.201).

기업인들이 적산을 따내기 위해 정치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권을 쟁기는 게 관례가 됐다. 검은 돈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의 단초는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한편 마카오무역에 편승해서 수많은 무역회사가 창업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인으로는 박홍식, 전택보, 김용주, 김원규, 나익진, 이정립, 설경동, 최성모, 최태섭, 김지태, 이원만, 이병철 등이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기업기반은 귀속재산의 불하나 마카오무역 등에서 구축되었다(ditto).

〈표 12〉 기업설립(1945 - 1960)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45	건설	동아건설, 전신=충남토건사	[62] p.80
1945	건설	동아건설산업, 최준문	[61] p.11
1945	섬유	태창직물주, 백윤수	[6] p.140
1945	운송	한진상사	[70] p.4
1945	운송	합자회사, 한진상사	[62] p.39
1945	음식품	백화, 강정준	[61] p.11
1945	제약	중외제약	[13] p.13
1945	제약	조선간유제약공업사 ← 일가와이제약소시설인수	[62] p.26
1945	제약	중외제약, 전신=조선중외제약소 ← 일주가이제약경	[62] p.16
1945	화장품	태평양화학	[70] p.4
1946	무역	삼호무역주	[60] p.89
1946	상사	동아상사주, 이한원	[60] p.89
1946	상업	두산상회, 박두병	[22] p.24
1946	운송	광주택시, 고바인천회장, 택시2대	[22] p.20
1946	음식품	조선양조, 제주산고구마, 신워료로사용	[21] p.27
1946	제당	대한산업주	[60] p.89
1947	무역	천우사, 전택보	[60] p.94
1947	보험	국제손해보험주, 이한원	[60] p.89
1947	제약	대한비타민화학공업사 ← 조선간유제약공업사, 개칭	[62] p.26
1947	해운	극동해운주, 남궁련	[60] p.89
1947	화학	탁희화학공업사	[60] p.89
1948	건설	동아건설합자회사, 개편	[62] p.80
1948	무역	삼성물산公司설립, 무역업	[21] p.28
1948	상사	원동홍업주	[60] p.89
1948	섬유	금성방직주, 설립, 김성곤	[60] p.89
1948	음식품	동양식품회사	[70] p.4
1948	음식품	조선흐모, 삼성인수	[21] p.28
1948	정보	동양통신사, 김성곤	[60] p.89
1948	항공	대한국민항공공사, KNA, 설립	[64] p.52
1949	상사	개풍상사, 주, =T개풍재벌	[60] p.89
1949	섬유	삼호방직주, 정재호	[60] p.89
1949	제철	조선선재주, 설립	[22] p.29
1950	건설	현대건설	[12] p.45
1950	섬유	조선견직, 김지태	[60] p.95
1951	금융	한국홍업은, 귀속재산불하 → 한일은	[23] p.74
1951	상사	두산산업	[60] p.94
1951	상업	삼성물산주식회사설립, 자본금=3억 → 1년뒤 60억	[21] p.8
1951	섬유	전남방직, 김용주	[60] p.96
1951	음식품	동거양조장, 삼성, 귀속재산불하 → 조선양조동인공	[23] p.74
1952	음식품	동양맥주	[60] p.96
1952	음식품	대한제분주, 이한원	[60] p.89
1953	건재	동화건재주, 최태섭	[60] p.89
1953	상사	호양산업주, 이정립	[60] p.89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53	상사	동화산업주, 최태섭	[60] p.89
1953	상사	라희산업주 → 반도상사주, 1956상호변경	[60] p.89
1953	섬유	대한방직주, 설경동	[60] p.89
1953	섬유	대전방직주, 인수설립	[60] p.89
1953	섬유	한영방직주, 이한원	[60] p.89
1953	언론	자유신문사, 백낙승	[60] p.96
1953	음식품	제일제당설립	[21] p.8
1953	음식품	풍국주정주설립	[60] p.89
1953	제약	대한중외제약주, 설립	[62] p.17
1953	화약	한국화약, 김종회	[60] p.96
1954	금융	대동증권주	[60] p.89
1954	목재	대성목재, 전택보	[60] p.96
1954	상사	신진홍업주, 함창희	[60] p.89
1954	섬유	경북메리야스염색가공주	[60] p.89
1954	섬유	제일모직주	[60] p.89
1954	제당	동양제당주, 삼성이 주식 40.35%소유	[60] p.89
1954	제당	한국정당주, 이한원	[60] p.89
1954	제철	한국특수제강인수 → 동국제강	[22] p.29
1954	타이어	한국타이어주, 삼성이 주식 42.08%소유	[60] p.89
1955	광업	대한탄광주	[60] p.89
1955	무역	국동통상주, 남궁현	[60] p.89
1955	무역	동서해상주, 백낙승	[60] p.89
1955	섬유	충남제사주, 최태섭	[60] p.89
1955	섬유	동양방직주, 서정익	[60] p.96
1955	음식품	동립염업주, 함창희	[60] p.89
1955	음식품	동립산업주, 함창희	[60] p.89
1955	전선	대한전선주, 설경동	[60] p.89
1955	제철	한국흡관주, 남궁련	[60] p.89
1956	건설	공영토건, 동아에 인수	[62] p.10
1956	무역	반도상사	[12] p.44
1956	무역	아남산업, 설립	[22] p.38
1956	부동산	작약도운영주, 함창희, 백낙승	[60] p.89
1956	섬유	경남모직 = 한일그룹의 모기업	[22] p.39
1956	시멘트	대한양회주, 이정립	[60] p.89
1956	음식품	대동제당주, 설경동	[60] p.89
1956	제과	동양제과공업주, 이양구	[60] p.89
1956	지류	천일증권주, 삼성소유	[60] p.89
1956	통신	동화통신사, 주	[60] p.89
1957	금융	제일은행	[60] p.89
1957	무역	효성물산	[12] p.44
1957	무역	근영물산	[12] p.44
1957	비료	한국비료주	[60] p.89
1957	상사	태창상사주, 백낙승	[60] p.89
1957	시멘트	동양시멘트공업주	[60] p.89
1957	유리	한국유리공업주, 최태섭	[60] p.89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58	건설	동명증권설립	[62] p.84
1958	건설	동아건설산업합자회사, 개칭	[62] p.80
1958	보험	대한교육보험주	[63] p.15
1958	보험	대한교육보험주, 설립	[63] p.15
1958	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60] p.89
1958	보험	안국화재해상보험주	[23] p.74
1958	상사	금강홍업주, 백낙승	[60] p.89
1958	상사	삼양홍업주, 정재호	[60] p.89
1958	섬유	태창공업주, 백낙승	[60] p.89
1958	전자	금성사	[12] p.44
1958	제과	주, 롯데, 설립	[22] p.19
1958	타이어	조선타이어공업, 귀불하 → 한국타이어, 이양구와공	[23] p.74
1959	금융	서울은행	[60] p.89
1959	레저	도곡상사주 → 아스토리아호텔	[60] p.89
1959	보험	범한화재해상보험주	[60] p.89
1959	석유	한국석유주, 남궁련	[60] p.89
1959	섬유	협동섬유주, 백낙승	[60] p.89
1959	섬유	태창산업주, 백낙승	[60] p.89
1959	섬유	조선방직주, 인수	[60] p.89
1959	전자	금성사	[60] p.89
1959	제철	삼화제철,?	[60] p.89
1960	건설	한신공영	[22] p.37
1960	상사	제일실업, 주, 연대미싱	[60] p.89
1960	상사	동양산업개발주	[60] p.89
1960	자동차	현대자동차, 포드조립생산	[12] p.45
1960	타이어	삼양타이어공업(주)	[67] p.1
1960	항공	한국항공, 설립	[62] p.53

## ② 제 2 기(1961 - 1971) ([20] p.15)

60년대는 정부의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수출촉진 및 독과점이의 보장정책 등에 의해 재벌은 도약의 시기를 마지 하였다. 개풍(제빙 및 탄광업), 대한 제분(제분 및 중석수출), 동양(시멘트 및 제당) 한국유리(유리)등 7대재벌이 밀려나고 한진(운수, 항공), 신진(자동차) 현대(건설 및 자동차), 쌍용(시멘트), 한화(화약 및 정유), 대농(섬유 및 수입업)등이 등장했다.

또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은 경제개발초기의 특성상 섬유, 목재, 신발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육성하였으므로 경공업 재벌이 부상하였다. 면방의 경방, 전방, 일신방직, 동일방직, 화섬의 선경직물, 코오롱, 동양나이론, 한일합섬, 목재의 동명목재, 대성목재, 성창기업, 한국합판, 신발의 국제상사가 각광을 받았다. 어떤 전경련관계자는 이 시기를 "재벌의 천국이 열렸다."

〈표 13〉 기업설립 인수·합병동향(1961 ~ 1971)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62	시멘트	쌍용양회	[18] p.21
1962	제지	새한제지인수, 전주제지로 개명	[21] p.35
1962	포장지	롯데알미늄, 설립	[22] p.19
1962	중공업	현대양행 창업	[22] p.21
1962	광업	한국광업제련주인수	[23] p.10
1962	무역	대우실업, 설립	[23] p.10
1963	섬유	동양나이론	[18] p.24
1963	보험	안국화재보험←안보화재해상인	[21] p.35
1963	매스컴	동양 TV + 라디오 서울 + 동양방송→	[21] p.35
1963	정유	대한제유인수	[21] p.35
1963	유통	동화백화점, 동방생명보험소유,	[21] p.35
1963	증권	동남증권, 동방생명보험소유, 인	[21] p.35
1963	보험	동양화재, 동방생명보험소유, 인	[21] p.35
1963	부동산	동화부동산(현 중앙개발)인수	[21] p.35
1963	전기	금성포스터전기, 금성 + 포스터전	[23] p.10
1963	보험	범한해상화재보험주→력키화재	[23] p.10
1963	비료	한국비료공업, 미쓰이, 합자, 국가	[23] p.74
1963	보험	삼성생명보험주←중앙생명보험	[23] p.74
1963	제지	전주제지←새한제지	[23] p.74
1964	보험	동방생명보험주인수	[21] p.35
1964	전기	삼성산요파초주→삼성전기주→	[21] p.38
1964	전자	삼성NEC주, 설립→삼성전관	[21] p.38
1964	섬유	고려합섬→주, 고합	[22] p.32
1964	운송	동부고속, 설립	[22] p.34
1964	상사	선경산업주설립	[23] p.11
1964	비료	한국비료공업, 미쓰이, 합자, 국가	[23] p.74
1964	유통	신세계백화점←동화백화점	[23] p.74
1965	제철	인천제철→현대로 합류	[18] p.24
1965	음식료	원형산업인수, 미풍산업개명	[21] p.35
1965	전자	금성알프스전자, 금성 + 알프스전	[23] p.10
1965	건설	선경개발주설립	[23] p.11
1966	*	한비사건	[21] p.34
1966	매스컴	동양 TV 설립	[21] p.35
1966	비료	한국비료준공	[21] p.37
1966	부동산	용인자연농원←중앙개발	[21] p.41
1966	제지	전주제지-한솔제지	[22] p.26
1966	섬유	선경합성주설립, 일데이진과 합자	[23] p.11
1966	섬유	선경화섬주설립	[23] p.11
1966	정유	호남정유	[23] p.11
1967	매스컴	중앙일보설립	[23] p.74
1967	전기	삼성산요→삼성전기주.	[68] p.10
1968	제철	동부제강	[18] p.24
1968	건설	미륭건설=동부건설전신, 설립	[22] p.33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69	섬유	한일합성공업	[18] p.24
1969	전기	삼성산요파츠주→삼성전기주	[21] p.38
1969	항공	대한국민항공사, 인수, 대한항공	[22] p.16
1969	반도체	아남, 반도체조립사업시작	[22] p.38
1969	정유	대한석유공사, 초기결과지분 = 25%	[23] p.11
1969	정유	경인에너지가동	[23] p.11
1969	항공	대한국민항공사, 인수, 당시, 8대,	[61] p.11
1969	전기	삼성산요전기주, 설립	[68] p.10
1970	섬유	한일합섬공업	[12] p.45
1970	섬유	고려합섬	[18] p.24
1970	매스컴	라디오서울	[21] p.35
1970	통신	삼성GTE통신주→80. 한국잔자통	[21] p.38
1970	전기	삼성산요전기, 설립→삼성전기-	[21] p.38
1970	전자	삼성일렉트릭주, 설립→삼성전자	[21] p.38
1970	섬유	해약통상인수→해외섬유개칭	[23] p.11
1970	고무	한국합성고무주	[67] p.1
1970	정유	경인에너지	[23] p.11
1970	무역*	종합무역상사지점기업	[3] p.203
1971	무역	동국무역	[18] p.24
1971	섬유	선경화섬주설립	[23] p.11
1971	전자	삼성전자공업주, 설립	[23] p.74

신 개척지(유망산업)를 찾고 울타리를 치느라 정신없던 시절이었다”고 분석했다([20] p.15).

이 기간동안에 설립된 기업들은 총 64개사인데 이 중 58.3%에 해당하는 28업체가 신설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업이 6개사, 전자업(전기포함)이 4개사, 매스컴이 3개사, 정유, 건설, 무역 및 제철이 각 2개사이고 1개사씩 설립된 업종은 합성고무, 비료, 반도체, 통신, 포장지, 부동산, 상사 시멘트, 운송업 등이다. 이중 반도체 업종은 기업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1956년에 자전거부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무역회사로 설립된 아남이 1968년 반도체조립사업을 시작한 것이다([23] p.387).

외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설립된 기업으로는 삼성과 일본 미쓰이(三井)사의 합작사인 1964년의 한국비료공업주, 삼성과 일본산요사의 합작사인 1964년의 삼성산요전기주<sup>4)</sup> 및 1970년의 삼성산요파츠주<sup>5)</sup>, 1970년에 일본전기와의 합자사인 삼성 NEC주<sup>6)</sup>가 설립되었다. 또한 1970년에 금성과 일본의 알프스전기의 합작사인 금성알프스전자가 설립되었고 1971년에

4) 삼성전기주로 개편되었다가 1977년 삼성전자에 합병됨([21] p.38).

5) 삼성전기파츠주는 삼성전자부품주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삼성전기주로 개칭된 다음 1988년에 삼성전자에 합병됨(ditto).

6) 1974년 삼성전관주로 개칭되었다(ditto).

금성과 일본의 포스터전기의 합작사인 금성포스터전기가 설립되었다. 1977년에는 삼성과 미국의 GTE사의 합작사인 삼성 GTE통신주<sup>7)</sup>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 대한석유공사<sup>8)</sup>를 인수한 선경과 1968년에 대한국민항공사를 인수하여 (주)대한항공을 설립한 한진이 있다.

이 이외에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기업은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다.

### ③ 제 3기 (1972 - 1979) ([20] P.15)

유신정부시절인 70년대는 재벌들의 전환기였다. 1차오일쇼크 및 국내외 경기와 경영환경의 악화로 정부는 자금지원을 중화학에 집중시켰다. 또한 종합상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하자 재벌마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우는 수출로 대우신화를 창조하면서 재계랭킹 4위에 입성했다. 김우중 회장은 1965년 자본금 5백만원으로 대우실업을 설립하여 트리코트(tricot)자로 섬유수출 대열에 진입한 후

〈표 14〉 인수·합병기업

업종	기업명	인수기업	연도	비고	자료원
전자	삼업일렉트릭주	삼성전자	1971		[21].P.35
매스컴	동양 TV	중앙일보			"
매스컴	라디오 서울	중앙일보			"
보험	동양화재	삼성		반도	"
"	안보화재해상	"		안국화재보험	"
"	동방생명	"	1963	삼성생명	[21].P.35 및 [23] P.101
"	범한해상	LG	1970	럭키화재	[23] P.101
정유	대한제유	삼성	"		[21] P.35
증권	동남증권	"	"	양도	"
유통	동화백화점	"	"	신세계백화점	"
부동산	동화부동산	중앙개발	"		"
제지	새한제지	삼성	"	전주제지→한솔제지	[21].P.35 및 [22] P.267
제철	인천제철	현대	1964		[18] P.24
광업	한국광업제련주	LG	1970		[23] P.101
섬유	해외섬유	선경	1966	해외통상	"
음식품	원형산업	삼성	1963	미풍산업→제일제당	

(자료 : 표 13)

7) 1980년에 인수한 한국전자통신주와 합병하였고 1982년말에는 삼성반도체통신주로 개칭되었다가 1988년에 삼성전자주에 흡수합병되었다([31] P.38).

8) 결포의 초가지분은 25%이었고 인수시의 그것은 50%로서 매각조건은 \$9300만이었다. 인수후 유공으로 개칭 되었다([23] P.117).

정부의 수출금융혜택과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여 대미설유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하여 김회장은 창업 10년만에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신화를 창조하여 샐러리맨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이후 한국기계, 옥포조선, 새한자동차 등 중공업분야의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구조를 종공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열사의 사막에서 돈을 번 현대가 97년 삼성을 제치고 재벌순위 1위를 차지하는 대이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후 삼성과 현대사이의 외형경쟁은 총수 및 그룹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재계판도는 이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등 중화학공업분야에 기반을 형성한 재벌은 입지를 계속 넓혀갔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으로 탈바꿈하지 못한 재벌은 점차 밀려났다.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재정·금융상의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에 설립 또는 인수·합병된 기업을 보면 <표 15>와 같다. 이에서 볼 때 7개사가 신설되었는데 2개사가 설립된 업종은 금융·레저 전자 및 건설<sup>9)</sup>의 4개 업종이고 1개사가 설립된 업종은 광고·금속·기계·무역·상사·유류·유통·제지 및 조선의 9개 업종이다.

특기한 것은 유통재벌 뉴코아의 부상이다. 뉴코아는 1996년 30대기업집단의 서열 29위에 진입했다([22] p.374). 뉴코아가 한신공영에서 독립할 때 창업주의 재산은 반포일대의 부동산과 11개의 슈퍼마켓이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축적한 자본으로 일반상인에게 분양되었던 뉴코아쇼핑센터의 상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매장의 65%까지 확보하고 1985년에 백화점으로 개장하고 신관건축으로 백화점사업에 본격진출 했다. 1995년부터 할인점인 킴스클럽을 개점하였는데 1996년 현재 백화점은 11점, 킴스클럽 15점으로 늘었다([ibid..] p.377).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은 금성과 미국의 AT&T사가 합작 설립한 금성반도체, 삼성과 일본의 미쓰이(三井)사가 합작설립한 삼성석유화학, 삼성과 일본의 산요(三洋)전기가 합작 설립한 삼성산요파초주<sup>10)</sup>, 삼성전자와 미국의 코닝 유리사가 합작 설립한 삼영코닝사, 삼성과 미국의 GTE사가 합작설립한 삼성GTE통신주<sup>11)</sup> 삼성과 일본의 IH(이사가와지마하리

9) 이때 설립된 금성주택이 거평건설의 전신이다([22] p.405).

10) 삼성전기주로 개칭되었다가 삼성전자주에 흡수 합병됨([21] p. 102).

11) 1980년 인수한 한국전자통신주와 합병후 삼성반도체통신주로 개명되었다가 1982년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됨([21] p.38).

〈표 15〉 기업설립과 인수·합병동향(1972 - 1979)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72	섬유	대우실업→쌍미섬유합병	[23] p.10
1972	레저	삼성영빈관, 인수	[3] p.40
1972	무역	금호실업	[22] p.21
1972	목축	제동홍산, 설립	[64] p.65
1972	금융	동부상호신용금고, 설립	[22] p.34
1972	운송	대한통운국제운송주, 설립	[64] p.10
1973	건설	영진토건, 대우개발로 개명, 82주, 대우에 합병	[23] p.10
1973	도자기	대한도자기주, 인수	[65] p.69
1973	섬유	강원봉제→반도상사에 합병	[23] p.10
1973	전자	삼성코닝주	[3] p.38
1973	건설	동아생명보험주, 설립	[62] p.10
1973	기계	한국기계, 대우중공업개명	[23] p.10
1973	운송	대한용역주, 설립	[64] p.10
1973	전자	삼성전자부품주, 설립	[3] p.102
1973	광고	제일기획설립	[3] p.41
1973	유류	모빌코리아	?
1973	무역	신성통상→주 대우로 개명	[23] p.10
1973	레저	위커힐호텔인수	[23] p.11
1973	전기	삼성산업주→삼성전기주→삼성전자D흡수합병	[3] p.38
1973	금융	동양증권-대우증권개명	[23] p.10
1973	항공	동아항공주, 설립	[62] p.10
1973	목재	신흥목재주, 인수	[65] p.68
1973	증권	한일증권, 설립	[64] p.64
1973	기계	대우기계, 설립	[23] p.10
1973	레저	주임파리얼, 호텔업→11월 호텔신라 개명	[3] p.40
1973	전자	금호전자	[22] p.21
1973	조선	제철화학→제철화학	[23] p.10
1973	유통	극동창고인수→선경창고개명	[23] p.11
1973	제지	풍국제지주, 인수	[65] p.69
1973	유류	선경석유주 설립	[23] p.11
1974	음식품	칠성사이다, 인수	[22] p.19
1974	화학	삼척산업=카바이트생산업체, 인수→동부산업	[22] p.34
1974	레저	호텔롯데, 기공, 79년완공	[22] p.19
1974	조선	삼성중공업주, 설립 = 삼성 = 75%, 일 IHI = 26%합작	[3] p.98
1974	유화	삼성석유화학, 미아모코+일삼정합작	[22] p.39
1974	철강	극동철강→금호산업	?
1974	유화	삼성석유화학공업주, 설립, 미아모토+일미쓰이석유화학	[3] p.39
1974	레저	제주 KAL호텔	[62] p.76
1974	레저	롯데월드=테마파크, 설립	[22] p.19
1974	전기	마포산업→금호전기	?
1974	금융	광주투자금융	[22] p.21
1974	금속	회성금속공업, 금성 = 20%, 다나카금속 = 45%	[23] p.10
1975	통신	한솔텔레콤, 설립	[22] p.26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76	무역	주. 선경개명	[23] p.11
1976	섬유	선경섬유유주, 선일섬유합병	[23] p.11
1976	건설	동아엔지니어링주, 설립	[62] p.10
1976	자동차	새한자동차, 신진자동차전신→대우자동차	[23] p.10
1976	금융	신원산업인수→선경금속	[23] p.11
1976	섬유	명천기업→금호섬유	?
1976	반도체	금성반도체, 금성 52% + AT&T44%	[3] p.101
1977	건설	통일건설, 인수 →삼성종합건설주, 개명	[3] p.40
1977	건설	협우산업인수 →선경건설	[23] p.11
1977	부동산	정석기업, 설립	[64] p.65
1977	건설	세계산업→럭키개발인수	[23] p.10
1977	해운	한진해운, 설립	[64] p.61
1977	조선	우진조선인수 →삼성조선개명, 삼성중공업에 합병	[3] p.40
1977	조선	대성조선주, 인수→삼성조선	[3] p.97
1977	건설	선경건설←삼덕산업합병	[23] p.11
1977	해운	선경해운주설립	[23] p.11
1977	조선	옥포조선소→대우조선	[23] p.10
1977	통신	삼성GTE통신, 설립→80인수한 한국전자통신주와 합병	[3] p.38
1977	건설	삼성해외건설, 설립→삼성종합건설주에 흡수합병	[3] p.40
1977	제지	온광펄프, 설립	[23] p.42
1977	조선	대성중공업주인수→삼성중공업에 합병	[3] p.40
1977	금융	한불종합금융, 설립	[64] p.64
1977	항공	삼성정밀공업주, 설립→82. 삼성항공주, 개명	[3] p.40
1977	조선	삼성조선주설립, 삼성중공업에 합병	[3] p.97
1977	정보	한국반도체인수 →삼성반도체주개명. 79삼성전자에 합병	[3] p.38
1978	상사	태양공업, 반도상사인수	[23] p.10
1978	기계	서통정밀→반도상사인수	[23] p.10
1978	건설	경남기업→경남기업	[23] p.10
1978	반도체	대한반도체, 금성반도체인수	[23] p.10
1978	전기	서통전기→반도상사인수	[23] p.10
1978	전기	서홍전기→반도상사인수	[23] p.10
1978	전기	오리온전기→오리온전기, 대한전선계열인수	[23] p.10
1978	건설	동아종합개발주, 설립	[62] p.10
1978	전자	서통전자→반도상사인수	[23] p.10
1978	제약	대웅제약, 대한비타민화학공업사, 인수개칭	[24] p.26
1978	고무	경성고무인수	[23] p.11
1979	건설	거평건설, 금성주택 = 전신	[22] p.40
1979	레저	동아관광개발주, 설립	[62] p.10
1979	부동산	교보부동산관리주. = 교보실업, 설립	[63] p.7
1979	유통	뉴코아, 1개의 슈퍼와 부동산	[23] p.37
1979	유통	뉴코아, 슈퍼수익→기분양 뉴코아쇼핑센터상가매입	[23] p.37
1979	상사	한일, 주력기업 = 한일합섬, 경남모직	[22] p.39

마종공업)사가 합작으로 삼성중공업(조선)이 설립되었다. 설립후에 인수 · 합병된 기업으로는

1977년에 설립된 삼성해외건설<sup>12)</sup>과 삼성 GTE통신<sup>13)</sup>이 있다.

〈표 16〉 흡수·합병기업(1972 ~ 1979)

인수재벌	기업명	업종	비고
동부	삼척산업	화학	동부산업으로 개칭
대우	신성통상	무역	(주)대우로 개칭
"	오리온전기	전기	대한전선계열인수
"	경남기업	신설	
"	쌍미섬유	섬유	대우실업
"	영진토건	건설	대우개발개칭 - 82 주대우합병
"	옥포조선	조선	대우조선개칭
"	제철화학	제철	
"	새한자동차	자동차	신진자동차건설, 대우자동차
"	한국기계	기계	대우중공업개칭
"	동양증권	증권	대우증권개칭
금호	극동철강	제철	금호산업개칭
"	명천기업	섬유	금호섬유
"	모발코리아	유류	
"	마포산업	전기	금호전기 개칭
LG	서통전기	"	반포상사 인수
"	태양공업	상사	"
"	서홍정밀	기계	"
"	서종전자	전자	"
"	서동전기	전기	"
"	강원봉제	섬유	"
"	세계산업	건설	럭키개발인수
"	대한반도체	반도체	금성반도체인수
롯데	칠성사이다	음식료	
선경	선일섬유	섬유	선경섬유개칭
"	경성고무	고무	
"	신원산업	금속	선경금속개칭
"	삼덕산업	건설	선경건설
선경	극동창고	유통	선경창고개방
"	워커힐 호텔	레저(호텔)	
"	협우산업	건설	선경건설
삼성	루임페리얼	레저(호텔)	호텔신라개명
"	영빈관	"	
"	한국반도체	반도체	삼성반도체개명→삼성전자합병
"	대성조선주	조선	삼성조선개명
"	통일건설	건설	삼성종합건설 주개명
"	후진조선	조선	삼영조선개명→삼성중공업합병
	대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에 합병

(자료 : 〈표 15〉에 의함)

12) 삼성종합건설에 흡수합병됨.

13)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됨.

이 기간동안에 흡수·합병된 기업의 일람표는 〈표 16〉과 같으며 선경은 (주)선경으로 상호를 바꾸었고 삼성계열의 삼성정밀주는 삼성항공주로 개칭되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는 종합무역상사제도가 생겨 재계에 대변혁이 일어났다. 1975년 삼성이 제 1호로 지정받았으며 뒤이어 대우실업, 쌍용, 국제상사, 한일합섬, 효성물산, 선경, 반도상사, 금호실업, 삼화, 현대종합상사, 울산실업 등 15개사가 지정<sup>14)</sup>을 받았다. 그 후 울산, 삼화, 한일합섬등 3개사는 탈락되었다([15] p.203).

#### ④ 제 4 기(1980 - 1996)<sup>15)</sup> ([20] p.15)

이 시기는 5공화국(1981 - 1987) 이후 90년대의 6공화국(1988 - 1992) 및 7공화국(1992 - 1996)에 이르기까지 70년대의 중화학에 이어 반도체, 신소재, 정밀화학, 항공우주산업, 통신분야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진출과 투자가 부쩍 증가했다. 10대 재벌중 경공업재벌인 국제상사와 효성이 대재벌 서열에서 밀려났고 자동차, 정유 등 중화학업종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한 쌍용과 유통재벌 롯데가 10대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이 시기이후 상위재벌과 하위재벌간의 외형격차가 갈수록 커졌다. 특히, 삼성 현대가 3위 이하의 재벌들을 따돌리고 쌍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과 상위권 이하의 중하위 그룹에서 세력변화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삼성은 50년대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로 50년간 재개정상권을 유지하면서 현대와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대별로 정부의 정책에 부응, 초기의 수입대체를 위한 경공업위주에서 중화학 및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으로의 기업변신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선경의 급부상은 기업인수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선경은 신군부정권 초기인 80년 삼성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공을 인수, 단숨에 재벌랭킹 5위로 부상했다. 유공의 매출액은 그룹 외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선경은 14년뒤인 94년 전경련 및 정부의 「밀어주기」에 힘입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에 진출했다. 6공정권하에 선경은 또한 증권업에도 진출하여 대통령사돈 기업으로서의 뒷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광복이후 50년간 수없이 명멸한 재벌들의 부침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신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 하에서는 정부와의 로비연출도 기업확장과 경영에 중요한 변수였다. 정치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던 시절 최고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대규모이권사업이 결정되고 패션에 걸린 기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권위주의시절, 기

14) 1976년에 개정된 지정조건은 수출실적 1억달러 이상, 자기자본금 15억원 이상이다([23] p.114).

15) 이 시기구분은 필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

업은 뇌물이 아닌 생존비용차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해야 했다. 기업들은 이를 생존 보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공시절 국제그룹의 분해는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벌들은 정치자금 제공의 반대급부로 이권사업을 쟁겨 권부와 재계간의 겹은 돈에 의한 정경유착의 폐단이 문민정부의 최대해 결과제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업이 설립, 인수, 합병되었다. 업종별로 신설동향을 보면 가장 많은 업종은 유통업의 7개사이며 다음은 각 4개사의 통신·건설이고 정보는 3개사이며 2개사가 설립된 업종은 광고, 음식품, 섬유, 컴퓨터의 4개업종이며 1개사가 설립된 업종은 금융, 시계, 레저(호텔), 상사, 무역, 스포츠팀, 운송, 제약, 의료기계, 임산, 정보, 제지, 항공 등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재벌의 분할과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한솔이 삼성과 1991년에 완전 분리되었고([22] p.267). 1994년 9월에는 미원그룹회장의 동생이 독립하여 세원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미원이 세원의 전 주식을 매입·인수하였다(ibid p.412).

1981년에는 창업동업자인 박병규(朴炳圭), 신정차(申正次), 민병덕(閔炳德)의 2세들간의 분가로 해태그룹은 3분되었다. 주업이던 해태제과, 음료, 상사 등을 맡은 해태그룹은 식품사업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분야로 다각화해 갔다. 1981년 광고대행사 해태기획(현 코래드)을 시작으로 해태유통, 야구단 타이거즈를 설립했다. 또한 1983년에는 대아상호신용금고와 관이음 새메이커인 마진금속을 인수해 탈식품의 기반을 다졌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오디오 전문업체인 인켈파 나우정밀 등을 인수해 정보·통신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갔다 ([22] p.364).

이 기간동안에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설립된 기업은 <표 18>과 같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는 재벌들의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대상 기업은 (주) 카프로락탑사로서 효성그룹과 코오롱그룹 사이에 전개되었다([22] p.285).

제조업과 금융업에 이어 제3의 사업영역으로서 정보통신사업에 주력을 쏟던 동양그룹은 1992년 제2이동 통신사업자 선정때 탈락했다. 1996년 차세대휴대통신(PCS)과 주파수공용통신(TRS)분야를 회망했으나 경영전략상 신규사업자신청은 하지 않고 대신 데이콤(DACOM)지분확보에 치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공식적으로 데이콤의 주식의 9%이상을 보유하였다([22] p.352).

〈표 17〉 기업설립, 인수합병동향(1980 - 1995)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80	유통	뉴코아쇼핑센터상가, 전체매장의 65%매입	[22] p.377
1980	*	대우, 재산사회환원 파동	[23] p.110
1980	유류	대한석유공사→유공개명, 주 선경인수	[23] p.115
1980	기계	만도기계, 한라 제2창업의 밀거름	[22] p.219
1980	금융	부산투자금융, 인수	[23] p.101
1980	기계	선경기계, 선경머린, 선경목재매각	[23] p.118
1980	음식품	선경식품매각	[23] p.118
1980	*	유공인수배경	[23] p.117N.58
1980	중공업	현대양행→현한국중공업, 신군부통폐합조치	[22] p.218
1981	전자	금성마이크로닉스	[23] p.101
1981	*	분가=해태제과, 음료, 상사	[22] p.364
1981	로보트	삼성항공내에 로보트사업기초조사팀설치	[23] p.112
1981	반도체	선경반도체매각	[22] p.118
1981	섬유	영남방직매각	[23] p.118
1981	*	해태, 창업자3인동거체제→2세분가	[22] p.364
1981	유통	해태기획(현코래드)설립	[22] p.364
1981	광고	해태기획→코래드	[22] p.364
1981	스포츠	해태타이거즈창단	[22] p.364
1982	제철	연합철강인수	[22] p.294
1982	유전공학	유전 공학연구실, 상설	[3] p.112
1982	제철	일신제강인수→동부제강	[22] p.343
1982	정유	풍국정유→풍국정유공업	[23] p.108
1982	석유화학	한양화학, 인수	[22] p.179
1983	정유	경인에너지→한화에너지, 개명	[22] p.179
1983	금융	대보증권→리키증권합병	[22] p.101
1983	금융	대아상호신용금고, 인수	[22] p.364
1983	전자	대한전선전자부문인수→대우전자설립	[23] p.108
1983	전자	동성전자→대우전자부품개명	[23] p.108
1983	금속	미진금속=관이음새메이커, 인수	[22] p.364
1983	시계	삼성시계주, 설립	[3] p.41
1983	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컴퓨터부문설립	[23] p.9
1983	상사	주식회사 금호→삼양타이어+금호실업	[22] p.211
1983	보험	한국자동차보험, 인수	[22] p.343
1984	컴퓨터	금성하나월, 금성 35% + 하나월 50%	[23] p.101
1984	통신	대우통신, RCK와 합작	[23] p.111
1984	통신	대우통신, RCK와 합작	[23] p.111
1984	의료기계	삼성의료기계주, 설립	[3] p.41
1984	전자	삼성전자공업주→삼성전자주, 개명	[3] p.38
1984	금융	일국증권인수	[22] p.351
1985	*	국제상사동, 국제그룹인수	[22] p.394
1985	유화	금호석유화학←금호화학 + 한국합성고무=합병	[22] p.211
1985	유통	뉴코아쇼핑센터상가→백화점으로 개장, 신관신	[22] p.377
1985	전자	대우캐리어, 캐리어와 합작	[23] p.111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85	정보	삼성데이터시스템주, 설립	[3] p.41
1985	항공	삼성유나이티드항공주, 설립	[3] p.41
1986	전자	금성로토렉스, 금성+미로토렉스 각50%	[23] p.101
1986	컴퓨터	금성하다찌, 금성85%+하다찌 15%	[23] p.101
1986	고무	금호이파고무←금호석유화학+일본합성고무	[22] p.211
1986	자동차	현대자동차, 포니, 엑셀, 미수출	[5] p.583
1987	무역	SKC로 개명	[23] p.115
1987	유화	금호몬산토+미 몬산토	[22] p.211
1987	유화	금호셀화학+royal dutch shell	[22] p.211
1987	항공	삼성항공산업주←삼성정밀주 변경	[3] p.112
1987	전기	한국알프스전기, 금성5%+알프스전기95%	[23] p.101
1988	전자	삼성전자주→반도체통신주, 합병	[3] p.38
1988	섬유	선경인더스트리, 화섬과 합섬합병	[23] p.115
1988	항공	아시아나, 제2민항, 면허, 12월취항	[22] p.207
1988	화학	영남화학인수→동부화학에합병	[22] p.343
1989	운송	금호고속관광, 금호개발	[22] p.206
1989	?	금호미쓰이도아쓰+일 미쓰이	[22] p.211
1989	보험	동부애트나, 설립	[22] p.343
1989	금융	동부창업투자사, 설립	[22] p.343
1989	조선	조선공사→한진중공업, 개명	[22] p.160
1990	정보	나우정밀, 인수	[22] p.364
1990	유통	선경유통주설립	[22] p.115
1990	오디오	인켈, 인수	[22] p.364
1991	운송	광주고속관광→금호고속관광개명	[22] p.206
1991	금융	국민투자금융, 80년대설립→동부증권	[23] p.343
1991	상업	신세계백화점, 독립	[23] p.74
1991	제지	전주제지→한솔제지	[23] p.74
1991	제지	전주제지→한솔제지	[23] p.74
1991	해운	코리아타코마, 인수	[23] p.160
1991	건설	한솔개발=오크활용 휴양단지개발업체	[23] p.268
1991	무역	한솔무역	[23] p.268
1991	임산	한솔포렌=조림, 폐목재활용	[22] p.268
1992	건설	기평프레아, 원공전분양와료	[22] p.406
1992	제지	전주제지→한솔제지	[22] p.268
1993	음식품	경월소주인수	[22] p.246
1993	운송	광주고속→금호건설고속사업부개별	[22] p.206
1993	운송	광주고속→금호건설고속사업부에 흡수	[22] p.206
1993	건설	대림산업설립, 이재준	[22] p.256
1993	전자	대우전자부품, 마루콘전자와 합작	[23] p.111
1993	*	삼성과 분리	[22] p.267
1993	금융	아테네은행인수	[22] p.180
1993	화학	포스코켐, 인수	[23] p.409
1993	반도체	한국시그네틱스, 인수	[23] p.409
1993	*	한솔, 삼성과원전분리	[22] p.268
1993	정보	한진정보통신	[22] p.161

연도	업종	기 업 명	자료원
1994	통신	(주)금호텔레콤	[22] p.?
1994	유통	7-11, 편의점업체, 인수	[22] p.195
1994	광업	대한중석, 인수	[22] p.406
1994	유통	베스토아, 설립=편의점체인	[22] p.308
1994	음식품	주.미원-<세원 및 7개 계열사 분리	[22] p.412
1994	화학	한농=최대농약회사, 인수	[22] p.344
1994	유통	한솔유통설립	[22] p.268
1995	운송	금호렌터카사업부	[22] p.?
1995	금융	동해종합금융인수	[22] p.268
1995	유통	롯데쇼핑부산점개점	[22] p.190
1995	음식품	주. 미원, 대한투자금융매각	[22] p.412
1995	제약	주. 미원, 제약공장설립	[22] p.417
1995	화학	주. 한농=화학업체, 인수	[22] p.339
1995	유통	킴스클럽, 1호점개점 1년남짓 15개점	[22] p.377
1995	전자	한솔전자←한국마밸+옥소리	[22] p.269
1996	통신	DACOM주식 9% 확보	[22] p.352
1996	정보	PCS, TRS=주파수공용통신, 사업자선정불참결정	[22] p.352
1996	유통	뉴코아, 29위기업집단진입, 95기준	[22] p.374
1996	건설	동산토건	[22] p.251
1996	섬유	동양나이론→효성 T&C개명	[22] p.278
1996	섬유	동양포리에스터→효성생활산업개명	[22] p.281
1996	건설	두산건설←동산토건	[22] p.251
1996	음식품	두산곡산	[22] p.251
1996	음식료	두산식품←한양식품	[22] p.249
1996	컴퓨터	두산컴퓨터	[22] p.251
1996	유통	롯데로지스틱스, 설립, 일미쓰이합작	[22] p.195
1996	정보	롯데정보통신, 설립	[22] p.195
1996	건설	리비아대수로2단계공사통수식	[22] p.234
1996	유통	백화점=11곳, 캠스클럽=15개소	[22] p.377
1996	*	비자금공판, 2년6월 실형	[22] p.234
1996	금융	새한종금, 인수	[22] p.404
1996	광고	오리콤	[22] p.251
1996	제지	온양팔프→신호제지, 인수합병으로 성장	[22] p.423
1996	*	우성그룹인수	[22] p.394
1996	상사	주. 쌍용	[22] p.145
1996	*	주. 카프로락담경영권분쟁, 코오롱 그룹과	[22] p.285
1996	상사	주력기업=동부산업	[22] p.343
1996	음식료	주력기업=주. 진로	[22] p.307
1996	섬유	주력기업=주. 코오롱	[22] p.320
1996	자동차	주식보유상황	[22] p.165
1996	금융	중앙토자신탁, 인수	[22] p.351
1996	유통	하이웨이유통, 주. 뉴코아, 합병	[22] p.382
1996	정보	한글과 컴퓨터사인티넷부문, 인수	[22] p.246
1996	통신	한솔개인휴대통신(PCS)	[22] p.266
1997	유통	미원유통설립	[22] p.417

연도	업종	기업명	자료원
1997	레저	부산롯데호텔개관	[22] p.190
1997	음식품	선양주조인수	[22] p.246
1997	금융	주, 미원, 국제투자자문, 인수	[22] p.417
1997	음식품	주, 미원, 미원유통, 200여개편의점 운영	[22] p.417
1997	상사	주, 미원, 미원유통, 독립, 미원통상에서	[22] p.417
1997	음식품	주, 미원, 미원유화, 매각	[22] p.417
1997	음식품	주, 미원, 청정식품, 화영식품, 인수	[22] p.417
1997	음식품	주, 미원 → 세원주식매입, 인수	[22] p.412

〈표 18〉 합작설립기업 일람표(1980 - 1995)

연도	설립기업명	주체설립기업	합작선	자료원
1981	금성마이크로닉스	금성(50%)	대일본스크린(15%)	[23]p.101
1984	금성하니웰	금성(35%)	하니웰(50%)	[23]p.101
1984	대우통신	대우	미 RCK	[23]p.111
1985	삼성유나이티드항공	삼성	미 유나이티드 항공	[21]p.41
1985	대우캐리어	대우	미 캐리어사	[23]p.111
1985	금성하다찌	금성(85%)	일 하다찌	[23]p.101
1985	금토이피고무	금호석유화학	일본합성고무	?
1985	금성로토렉스	금성(50%)	이로토렉스사(50%)	[23]p.101
1987	한국알프스전기	금성(5%)	일 알프스전기(95%)	[23]p.101
1987	금호몬산도	금호	이몬산토사	?
1987	금호셀화학	금호	영헬화학	?
1989	금호미산이토마산	금호	일 미쓰이	?
1987	동부애티나생명보험	동부	애티나사	[22]p.343
1993	대우전자부품	대우전자	일 마루콘전자사	[23]p.163

(자료 : [17]에 의함)

1980년 한라고룹의 현대양행 (1962년 설립, 현재의 한국중공업)은 신군부의 통폐합조치로 몰수되었다. 그러나 만도기계와 한라중공업을 발판으로 재기를 하게 되었다([22] p. 218-219).

이 기간동안의 인수·합병동향을 보면 〈표 19〉와 같다.

이 기간동안에 삼성전자공업주는 삼성전자주로 개명되고 삼성정밀주는 삼성항공주로 개명되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선경은 선경기계, 선경반도체 및 영남방직을 매각하였으며 미원은 1995년에 대한투자금융을 매각하고 또한 1997년에 미원유화를 사돈기업인 금호에 매각하였다([23] p.412 및 p.417).

〈표 19〉 기업인수·합병동향(1980 - 1995)

연도	인수·합병기업	피인수합병기업	업종	비고	자료원
1982	동국	연합칠강	제철		[22] p.294
1982	동부	일신제강	제철	동부제강	[22] p.343
1983	동부	한국자동차보험	보험		[22] p.343
1988	동부	영남화학	화학	동부화재에 합병	[22] p.343
1991	동부	국민투자신탁	금융	동부증권 개칭	[22] p.343
1994	동부	한농	농약		[22] p.344
1993	두산	경원소주	음식품		[22] p.246
1996	두산	동산토건	건설	두산건설개칭	[22] p.253
1996	두산	한양식품	음식료품	두산식품개칭	[22] p.249
1996	두산	한글과 컴퓨터	정보	인터넷부분만 인수	[22] p.246
1997	두산	선양구조	음식품		[22] p.246
1982	대우	풍국정유	정유	풍국정유공업개장	[23] p.168
1983	대우	대한전선전자부문	전자	대우전자개칭	[23] p.108
1983	대우	동성전자	전자	대우전자부품대칭	[23] p.108
1984	동양	한국증권	금융		[22] p.351
1996	동양	중앙투자신탁	금융		[22] p.351
1996	동양	레미콤주식	정보		[22] p.352
1993	거평	포스코켐	화학		[23] p.409
1993	거평	한국시그니릭스	반도체		[23] p.409
1994	거평	대한중식	광업		[23] p.406
1996	거평	새한종합금융	금융		[23] p.404
1982	한화	한양화학	석유화학		[23] p.179
1982	한화	경인에너지	주유	한화에너지개명	[23] p.179
1993	한화	아테네은행	금융		[23] p.180
1989	한진	조선공사	조선	한신중공업개명	[23] p.160
1991	한진	코리아타코마	해운		[23] p.160
1985	한일	국제상사	상사		[29] p.394
1996	한일	우성그룹	건설		[29] p.394
1992	한솔	전주제지	제지	한솔제지개명	[22] p.269
1995	한솔	동해종합금융	금융		[23] p.268
1995	한솔	한국마벤+옥소리	전자	한솔제지개명	[22] p.269
1983	해태	미진금속	금속		[23] p.364
1983	해태	대아상호신용금고	금융		[23] p.364
1990	해태	인켈	오디오		[23] p.364
1990	해태	나우정밀	전자		[23] p.364
1985	금호	금호화학 + 한국합성고무	석유화학	금속석유화학개명	?
1989	금호	금호고속관광 + 금호개발	운송	금호고속관광개명	?
1991	금호	광주고속관광	운송	금호고속관광개명	[22] p.206
1993	금호	광주고속관광	운송	금호건설고속사업부개칭	[22] p.206
1997	금호	미원유화	석유화학		[22] p.417
1980	LG	부산투자금융	금융		[23] p.101
1983	LG	대보증권	금융	럭키증권에 합병	[23] p.101
1997	미원	국제투자자문	금융		[22] p.417
1980	선경	대한석유공사	정유	유공개명	[23] p.101.58

(자료 : [17]에 의함)

## V. 대기업의 위상과 그 변천

### (1) 한국 산업계의 현황

1995년 현재 한국에는 표 1에서 보았듯이 2,771,068개의 기업이 있었고, 13,634,273명이 고용되고 있었다.

이 중 법인기업은 8.1%의 224,654사이며 91.9%는 비법인·개인사업체이고([1] p.27). 668사는 기업이 공개된 상장기업이었다([25] p.17).

다음에 보듯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대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도모하여 왔었기 때문에 독립기업형(U형)이 아닌 복합기업형(M형)의 대규모기업집단<sup>16)</sup>이 성장하였다.

이들 대기업은 경제적 집중에 의한 독과점을 형성하여 그 폐해가 심하였으므로 1960년이래 공정거래법<sup>17)</sup>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다. 1986년 동법의 1차 개정시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규정<sup>18)</sup>에 따라 87년에는 32대집단 509개 계열사, 88년에는 40대집단 608개 계열사, 91년에는 61대집단 915개 계열사가 지정되었고 1995년에는 <표 21>에서 보듯이 30대기업 623개 계열사가 지정되었다.

이에서 보면 앞서 본 총 사업체 2,771,068개사 중 약 99%는 30대집단에 계열화되지 않은 독립형기업임을 알수 있다.

### (2) 대기업의 위상

#### ⑤ 10대재벌의 위상과 그 변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재벌의 대동기는 1950년대 중반이다. 이때 즉 1955년을 전후하여 전후의 복구사업과 함께 본격적인 대규모 공장건설 등의 기업활동이 시작된다. 더욱이 현재 한국재계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재벌중 대우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이미 사업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재벌의 모태기업을 1955년도의 자본금 규모 기준으로 보면 LG의 락화화학공업사, 쌍용의 금성방직, 현대의 현대건설, 삼성의 세일제당등을 들수 있으며 당시 단일업종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이미 재

16) 흔히 재벌로 불리워진다.

17)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18) 89년 2차개정부터 그 범위는 연간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4천억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규정되었다([23] p.145).

별적인 구색을 가진 기업으로는 삼양사 그룹과 대한산업그룹이 있었다([30] p.33).

삼양사는 1924년에 설립되어 1953년에 재생된 기업으로서 1955년에 이미 제당, 한천, 염전 등 3개 사업부를 거느리고 가장 많은 자본금을 가진 기업이었다. 대한산업 그룹은 1953년 대한방직을 설립하고 1955년에는 귀속재산인 조선전선을 인수하여 대한전선을 설립하고 1956년에는 대한제당을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대동증권과 원동홍업을 계열기업으로 거느려 무역, 섬유, 전선, 제당, 증권, 부동산업종에 6개 계열기업을 거느린 재벌로 부상하였다.

1960년 10대 재벌 중에서 단일업종을 영위한 기업그룹은 한국유리, 대한방직, 동립산업이었다([30] p.34).

10대재벌의 국민총생산 중에 점하는 비율은 1979년의 33%에서 1989년에는 54%로 증가하였고([5] p.583) 10대 재벌에 포함되는 기업의 부침은 <표 20>과 같다. 이에서 보면 1966년의 10대 재벌 중에서 1974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재벌은 3개뿐이며 1985년의 10대 재벌에 들어 있는 것은 8개이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업의 부침은 매우 컸다. 이 기간동안에 기업의 상대적 지위에 큰 변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력한 기업이 소멸하거나 새로 등장한 기업이 대기업으로 급부상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시장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문어발식확장이라는 강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경영다각화를 통하여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외형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그에 상응한 내실(內實)을 다지지는 못하였다. 생산력은 외형적으로는 두드러지게 확대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고도화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대외시장 개방의 진전에 따른 경쟁의 격화와 고

<표 20> 10대재벌의 변천(1966 - 1994)

	1966		1974		1980		1985		1994	
	그룹명	창립자	그룹명	창립자	그룹명	창립자	그룹명	창립자	그룹명	창립자
제1위	삼성	이 병 철	럭 키		럭 키		삼성		삼성	
제2위	삼호	정 재호	삼성	정 주영	대우		현대		현대	
제3위	삼양	김 연수	현대	김 종회	삼성		럭키금성		L G	
제4위	개풍	이 정림	한국화약	장상태	현대		대우		대우	
제5위	동아	이 한향	동국		한국생사	김지태	선경		선경	
제6위	럭키	구인회	대한	조홍제	효성		쌍용		쌍용	
제7위	대한	설경동	효성		선경		한국화재	김성곤	한화	
제8위	동양	이양구	신동아	최종현	코오롱	이동찬	한진		한진	
제9위	화신	박홍식	선경		대한전선		효성		효성	
제10위	한국유리	최태燮	한일합섬		국제상사	양정모	대림		대림	

자료 : [3] p.203

품질상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라는 내외 시장의 변동에 대해 기업은 새로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26] p.9)([12] p.456).

### ㉡ 30대기업의 현황과 위상

1995년 4월을 기준으로 한 30대 기업집단의 현황은 〈표 21〉과 같으며 30대 기업 집단이 국민경제상 차지하는 비중은 〈표 22〉와 같다.

〈표 21〉 30대기업 집단의 현황(95년 4월 1일 현재)

(단위 = 10억원, %)

기업 집단	전 체			해소대상		출 자 총 액	출 자 비 율	특 례 한도액	내 부 지분율	자기 본비율	영 위 업종수	경영실적(94)		
	계 열 사 수	총 자 산	순 자 산	회 사 수	금 액							매 출 액	경 사 이 익	당 기 순 이 익
현대	48	37,220	6,523	15	408	1,744	27.9	1,472	60.4	20.1	38	47,001	770	506
							(28.3)		(61.3)	(21.9)		(36)		
삼성	55	29,414	8,050	7	206	1,463	18.8	792	49.3	18.0	31	51,830	2,002	1,387
							(19.5)		(48.9)	(15.0)		(34)		
대우	22	26,143	2,237	5	245	1,622	30.1	671	41.4	27.9	26	20,557	512	339
							(32.4)		(42.4)	(26.6)		(27)		
엘지	50	24,350	4,657	7	165	1,132	23.5	569	39.7	24.9	29	29,570	1,116	822
							(25.8)		(37.7)	(25.2)		(32)		
선경	32	12,806	2,665	6	303	980	39.0	830	51.2	22.7	24	14,657	142	90
							(40.7)		(50.9)	(24.7)		(23)		
쌍용	22	10,954	2,251	4	110	469	21.2	302	33.1	26.0	33	11,399	175	132
							(20.5)		(33.8)	(30.4)		(31)		
한진	23	10,629	1,328	8	29	336	28.0	147	40.3	12.6	27	7,653	215	151
							(30.0)		(43.9)	(10.8)		(26)		
기아	14	9,813	1,660	2	0	230	13.9	0.3	21.9	18.5	11	7,277	△104	△56
									(22.7)	(19.8)		(12)		
환화	29	7,282	1,192	5	134	429	51.0	397	36.7	13.9	22	5,579	△81	△54
							(42.8)		(33.8)	(16.6)		(22)		
롯데	29	6,627	2,085	6	36	328	15.9	135	22.3	21.6	25	6,303	327	230
							(13.6)		(23.8)	(21.6)		(22)		
금호	24	5,373	474	2	67	375	54.4	179	40.3	19.1	17	2,491	3	△18
							(57.0)		(42.5)	(20.1)		(17)		
두산	27	4,807	682	7	59	203	30.8	162	51.6	15.5	26	3,671	△61	△74
							(22.3)		(51.3)	(18.6)		(24)		
대림	17	4,637	657	2	70	214	37.2	186	37.6	18.6	19	3,074	122	69
							(30.4)		(36.5)	(21.3)		(18)		
동아 건설	14	3,873	849	1	3	122	18.2	67	40.1	12.5	15	4,203	80	61
							(9.7)		(36.0)	(10.7)		(16)		
한라	15	3,429	392	0	0	56	123.9	0	57.8	3.0	12	3,027	△49	△68
							(37.6)		(58.6)	(6.6)		(13)		
동국 재강	16	3,237	1,047	5	5	167	161	18	46.6	22.1	14	3,052	106	83
							(24.5)		(53.0)	(17.1)		(140)		
효성	15	3,040	745	0	0	103	13.9	0	43.6	26.2	18	4,163	29	20
							(10.7)		(41.7)	(28.6)		(16)		
한보	13	3,012	477	0	0	6	12	0	88.3	16.7	13	1,312	48	71
							(0.3)		(79.5)	(16.0)		(10)		

기업 집단	전체			해소대상		출자 총액	출자 비율	특례 한도액	내부 지분율	자기가 본비율	영위 업종수	경영실적(94)		
	계열 사수	총자산	순자산	회사 수	금액							매출액	경사 이익	당기순 이익
동양	19	2,591	508	2	69	186	38.2	186	46.1	20.4	12	2,321	85	166
							(35.1)		(43.5)	(20.8)	(15)			
한일	13	2,559	372	1	17	102	43.2	44	43.1	19.2	16	1,240	△48	△3
							(62.6)		(49.0)	(16.4)	(20)			
코오롱	20	2,535	662	5	45	196	32.1	190	47.6	25.9	19	3,206	27	42
							(19.8)		(39.7)	(28.3)	(24)			
고합	10	2,503	290	2	41	125	50.5	110	46.7	13.5	9	1,699	24	19
							(50.2)		(43.6)	(14.3)	(6)			
진로	12	2,391	227	3	26	83.3	307.5	71	47.2	3.3	11	1,098	△42	△73
							(198.0)		(41.0)	(4.8)	(15)			
해태	13	2,358	415	5	29	108	30.5	100	34.0	16.0	11	2,175	15	2
							(25.5)		(31.8)	(11.7)	(10)			
동부	13	2,127	464	5	47	183	40.0	183	40.4	13.5	18	3,377	△28	△30
							(24.8)		(40.5)	(155.5)	(20)			
우성	8	2,116	211	2	22	45	51.8	74	62.6	10.2	10	1,209	△38	△21
건설							(38.0)		(59.2)	(10.8)	(10)			
극동	10	1,966	191	2	22	66	34.6	66	25.0	37.2	9	838	72	57
건설							(33.2)		(18.8)	(37.5)	(9)			
백산	18	1,781	276	2	7	57	22.8	24	41.3	15.7	18	1,121	10	10
							(15.5)		(36.1)	(16.1)	(22)			
미원	14	1,612	250	2	7	61	26.9	31	49.8	13.6	13	1,674	17	36
							(25.8)		(46.6)	(13.6)	(16)			
계	623	223,445	42,085	114	2,203	11,292	26.3	7,041	43.3	19.9	18.5	248,020	5,276	3,593
							(26.80)		(42.7)	(20.1)	(19.1)			

- 주 : 1. 순자산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 (부채총계 + 국고보조금 = 계열사출자금액)  
 2. 출자비율 = 출자총액 ÷ 순자산  
 3. 해소대상 : 95. 4. 1 현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는 경우 98. 3. 31까지 처분해야 하는 초과분  
 4. 특례한도액 : 95. 4. 1 현재 출자총액중 산업합리화, 유상증자, 순자산감소 등으로 인한 예외 인정분을 차감한 출자총액  
 5. 내부지분율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 계열회사 지분율  
 6. ( )안은 94. 4. 1 현재

(자료 : [28] p. 9)

〈표 22〉 30대 기업단의 국민경제상의 비중의 변화

연도	부가가치	고용
1990년	12.7	4.3
1991년	13.0	4.3
1992년	13.5	4.2
1993년	13.6	4.1
1994년	14.2	4.2
1995년	16.2	4.4
1996년	14.7	4.6

자료 : ([29] p. 27)

〈표 23〉은 87년에서 97년에 걸친 10년간의 30대 그룹의 위상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동안의 신규진입그룹은 93년엔 미원, 94년엔 한보, 96년엔 한솔, 뉴코아, 97년엔 아남, 거평, 미원, 신호등이고, 탈락그룹은 93년엔 국동정유, 94년 한양, 96년 우성건설, 미원, 97년엔 한보, 삼미, 극동, 벽산등이다((27) p.35).

〈표 23〉 30대 그룹의 위상의 변천(87 - 97)

순위	1987	1997
1	현대	현대
2	대우	삼성
3	삼성	LG
4	LG	대우
5	쌍용	선경
6	한진	쌍용
7	선경	한진
8	한화	기아
9	대림	한화
10	롯데	롯데
11	동아	금호
12	한일	한라
13	기아	동아
14	두산	두산
15	범양상선	대림
16	효성	한솔
17	동국제강	효성
18	삼미	진로
19	삼미	동국제강
20	극동건설	진로
21	코오롱	고합
22	금호	동부
23	동부	동양
24	고합	해태
25	한보	뉴코아
26	해태	아남
27	미원	한일
28	조선공사	거평
29	라이프	미원
30	삼한	신호

자료 : ((27) p. 25)

④ 100대기업의 위상과 그 변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1965년도의 100대 기업중 16개 기업만이 26년후인 1991년에도 100위권에 남아 있다. 이는 19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0대 기업의 생존율이 불과 16%임을 시사하는 것이다<sup>19)</sup>([30] p.13).

세계전체로는 38%, 미국기업은 21%, 일본기업은 22%이어서 우리나라 100대기업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59] p.2).

〈표 24〉 100대기업의 생존

기준/비교연도	1965년	1975년	1985년	1991년
1965년	100	22	19	16
1975년		100	30	25
1985년			100	74

(자료 : [30] p.16)

〈표 25〉는 1965년도의 100대기업 중 1991년에도 잔존하고 있는 기업의 1991년 순위와 변동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순위에서 밀려난 기업은 84개 기업인데 이 중 46개 기업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

〈표 25〉 1965년도 160대기업중 생존기업

기업명	1965년 순위	1991년 순위	변동순위	비고
제일제당	10	41	-31	1
제일모직	15	88	-73	1
삼양사	23	69	-46	29
한국타이어	27	85	-58	11
대림산업	32	24	+8	14
금성사	41	12	+29	3
제일은행	44	33	+11	-
조홍행	49	36	+13	-
상업은행	55	32	+23	-
태광산업	64	97	-33	16
한일은행	66	35	+31	-
대한생명	83	11	+72	-
대한교육보험	86	9	+77	-
동방생명	94	3	+91	1
현대건설설	96	17	+79	2
기아산업	100	15	+85	7

자료 : [30] p.22

19) 30년간의 생존율을 13%로 보는 경우도 있다([59] p.2).

다([30] p.16). 도산하지는 않았으나 사세(社勢)가 현저히 기울어지어서 유명무실해진 기업은 38개사이다(ibid. p.17).

1991년에도 100위권내에 남아있는 기업중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은 기아산업, 현대건설 금성사 등이다(ibid. p.20). 반면 성장이 둔화된 기업은 제일모직, 한국타이어, 삼양사, 태광산업, 제일제당 등이다(ibid. p.20).

그런데 이들 잔존기업의 대부분은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에 속한다.

#### ② 쇠퇴한 대기업

그러면 앞서 본바 한국 기업의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성장한 기업과는 달리 쇠퇴하여 퇴출한 대기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표 26>은 이를 도산한 기업을 나타낸 것이다.

<표 26> 기업도산 일람표

연도	기 업 명	비 고	자료원
1961	태창재벌, 5.16후	정치권관계	[61] p.146
1978	제세그룹	자금경색	[30] p.100
1978	화신그룹	자금경색, 정치권관계	[30] p.94
1979	삼화, 은행관리	무리한인수합병, 특혜금융축소	[23] p.108n49
1979	율산그룹	자금경색, 방만한기업 확장	[30] p.110
1979	동명목재	원자재가격상승, 방만경영	[20] p.15
1979	동명그룹	원자재가격상승, 방만경영	[30] p.89
1979	율산그룹	건설투기, 특혜금융혜택축소	[23] p.108n49
1980	명성그룹	사기행각	[30] p.119
1980	영동그룹	사채부담	[30] p.105
1981	국제그룹	정치권관계	[30] p.134
1981	광명그룹	정치권관계	[30] p.130
1983	한양그룹	오너의 독단적 경영, 무리한사업 확장	[30] p.139
1988	중앙산업그룹	자금경색, 정치권관계	[30] p.125
1992	삼화, 최종도산	무리한인수합병, 특혜금융축소	[23] p.108n49

이에서 보면 해방이전부터 세칭 태창재벌로 불리던 태창재벌이 1961년 5.16군사혁명이후 몰락하고([6] p.146), 1974년에 창업되어 급성장을 하여 162억원의 자산을 가졌던 제세그룹이 액면가 1,110만원의 당좌수표로 1차부도를 내어 도산했었다([30] p.103).

1978년에는 역시 해방이전부터 존속하던 화신 그룹이 부도처리되어 도산하였다. 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통과되고 이듬해 창업주인 박홍식씨는 체포되고 조선우선에서 용선한 앵도환(櫻島丸)이 북한에 압류되자 크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도산원인으로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그의 어두운 과거가 해방이후 사업전개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은 사실이다([30] p.99).

1979년에는 전설경기에 따른 합판수요의 증대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경공업재벌 동명그룹이 경영권을 승계한 장남의 방만한 회사경영과 가정불화 때문에 도산하였다([30] p.90). 또한 제사(製絲)제벌로 불리던 삼화그룹이 1970년대의 무리한 인수·합병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정부의 특혜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구성으로 인해 은행관리기업이 되었다가 1992년에 최종 도산되었다([23] p.168 주149). 같은 해 방만한 기업확장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은 윤산 그룹은 청와대비서실장의 눈밖에 나서 도산하게 되었다([30] p.119).

1980년에는 경영자의 사기행각으로 명성그룹이 도산하고 사채(私債)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동그룹이 도산하였다.

1981년에는 국제그룹이 5공화국의 권력충과의 갈등 때문에 권력에 의한 손보기에 걸려 도산하였고<sup>20)</sup>([30] p.138) 또한 일해재단설립기금 20억원을 기부하지 않아 광명그룹이 도산하였다([30] p.134).

1983년에는 한양그룹이 오너의 독단경영과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도산하였다([30] p.141).

1988년에는 1946년에 설립된 중앙산업을 모체로 하는 중앙산업그룹이 자금경색과 정치권과의 지나친 밀착관계 때문에 도산하였다([30] p.129).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자.

한국의 기업이 성장 발전하여 현시점에서 군림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존속기업이 있는가 하면 앞서 본 바 여러 기업들이 실패하여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 기업들도 많다. 이들 기업은 왜 도산하게 되었을까 ?

무엇이 이들 대기업을 몰락시킨 주된 요인일까 ?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20)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의 해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30] p.138).

## VI. 한국기업성장 요인과 발전단계의 분석

### (1) 한국기업성장요인의 분석틀

그러면 한국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포터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은 4가지의 주요인과 2가지의 추가요인을 들고 있다([31] p.71-73).

이에서 보면 기업외부의 환경조건은 ②, ③, ④, ⑤ 및 ⑥의 4조건이며 ⑤의 기회는 환경변화에 따른 동태적 요인이며 기업내부조건으로는 ①의 자원요건인 요소조건과 ④경영관리 관련요인이 있다.

기업의 성장초기에는 단기적으로 자원조건 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영관리요인이 더 중요하다.

〈표 27〉 포터의 기업발전요인

1. 주요인
① 요소조건 : 생산요소의 질
② 수요조건 : 자국시장수요의 성질
③ 관련·지원산업의 존재양식 : 남풍기업이나 관련산업의 존재양식
④ 기업의 전략·구조 및 기업간 경쟁의 성질
2. 추가요인
⑤ 기회
⑥ 정부

자료 : ([31] p.71-73)

그리고 이들 6요인중 특히 중요한 요인은 ①②③ 및 ④의 4가지로 이들 요인의 상호관련하에 산업경쟁력의 우열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다이아몬드 시스템(Diamond System)으로 부르고 이 분석틀에 의해 각국의 산업의 경쟁력의 강약을 규정한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오늘날 생산의 사회화와 사회적 분업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 특정의 산업이나 기업의 발전을 생산 요소를 포함한 산업전체의 메커니즘이나 그 발전력과 관련 지워 파악한다는 것은 타당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34] p.70).

## (2) 포터의 분석사례

포터는 위와 같은 분석틀에 의해 세계의 여러나라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한국의 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분석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미국

#### ① 요소조건

미국의 요소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와 관련하여서는 넓은 경작 가능한 토지, 풍부한 삼림, 수많은 자원의 매장 등은 자연요소가 풍요하여 이민과 아울러 유럽에서 이입된 고도의 공업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고 신생 미국과 미국사람들이 가지는 개척자 정신은 항상 이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미 20세기에 이르기 전에 다음에 보는 경제발전단계상의 혁신추진단계에 도달하여 1900년대 초기에 많은 산업분야에서 선도적인地位를 확립하게 되었다([31] p.284).

#### ② 수요조건

수요조건면에서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후, 지형, 산업이 분포하고 있어서 국내에 광범한 시장요구나 세분시장을 성립시켜 주었다. 그것은 소비자용 서비스 산업의 강력한 바탕이 되어 대중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발전시켰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차례로 새로운 산업체를 창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방위수요는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공우주산업 등 일련의 미국의 중요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 수요를 선도하고 있다([31] p.300-301).

이와 같이 하여 미국산업은 세계 제1급의 폭 넓은 산업을 창출하였고 나아가 이에 의해 혁신(신결합)이나 신규산업을 생기게 하여 유례가 없는 경쟁력이 있는 지원산업으로 형성되는 광범한 산업군(industry cluster)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 심별은 방위관련산업에서 엿볼수 있다고 한다(ibid p. 303).

#### ③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

미국은 다양한 이민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들은 왕성한 향상의욕을 가져 스스로 위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기업목표는 끝없는 기회의식을 반영하며 그 결과 대다수의 주요산업에서 격심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실로 이것이 미국에 번영을 가져다준 주요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ibid, p.304).

그러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미국도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잃기 시작하여(ibid. p.504) 〈표 28〉에서 보듯이 무역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가 생겨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戰落)하여 국민의 생활이 고통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표 28〉 미국의 무역, 재정수지, 국채, 자산부채잔고의 추이

(단위 : 10억달러)

年 代	貿易收支 <sup>(1)</sup> (기간평균치)	財政收支 <sup>(2)</sup> (기간평균치)	國債發行殘高 <sup>(3)</sup> 국채발행잔고	對外資產負債殘高 <sup>(4)</sup> 국채발행잔고
1950年代	2,934	△ 3.0	256.7	-
60年代	4,082	△ 5.9	290.4	-
70年代	△10,382	△ 33.2	389.2	66,759
80年前半	△53,901	△134.7	930.2	258,792
85	△122.15	△212.3	1,945.9	64,306
86	△145.06	△221.2	2,214.8	△ 74,122
87	△159.50	△149.7	2,431.7	△134,960
88	△126.99	△155.1	2,684.4	△305,976
89	△144.87	△152.0	2,953.0	△439,656
90	△108.68	△123.8	3,364.8	△412,163

(注) 1. 금액은 기간(평균) 환산치.

2. 國債發行殘高는 작년도 明年度(年도의 첫해)의 값

3. △표는マイ너스임

포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요소조건면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은 방위산업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이외의 산업에서는 신공정기술을 채용하거나 설비개체를 하거나 신제품이나 특징을 도입하는 점에서 뒤져서 요소창조면에서 낙후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미국전체의 투자율의 저하와 아울러 타국에 비해 인적 자원의 질이 낙후하였기 때문이다.”([31] p.520)

그러나 포터의 견해와는 달리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분명 인적자원의 질이 생산력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하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십년에서 백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속에서 배양되면서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지 단 기간내에 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 당시 미국에서 인적자원의 질이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19세기말로부터  $\frac{2}{3}$  세기에 걸쳐 세계의 정상에서 번영을 계속해

온 미국이 60년대 말의 수년간을 고비로 급속히 쇠퇴하게 된 원인은 인적자원의 질이 아닌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고 그것은 포터 자신이 미국산업의 특징으로 지적한 국내설비 투자의 저하와 산업구조의 방위산업으로의 중점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4] p.74).

〈표 29〉에서 보듯이 미국산업의 투자 총액은 70년대를 통하여 그 이전보다 비교적 높은 신장을 하고 있으므로 투자율이 낮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투자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경제쇠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ibid., p.74-75).

〈표 29〉 미국자본의 국내외설비투자의 추이

(단위 : 억달러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國內投資 <sup>1)</sup> (構成比)	263 (45.2)	342 (40.9)	414 (35.4)	627 (33.6)	1233 (36.4)	1859 (32.9)	2157 (26.5)
海外直接投資 <sup>2)</sup> (構成比)	319 (54.8)	495 (59.1)	754 (64.6)	1240 (66.4)	2156 (63.6)	3796 <sup>3)</sup> (67.1)	5981 (73.5)
投資合計	582 (100)	837 (100)	1168 (100)	1867 (100)	3389 (100)	5655 (100)	8138 (100)

注) 1) 國內設備投資중 外國資本投資제의

2) 海外直接投資를 國外設備投資로 간주

3) 1985年以後는 投資額을 現在價額으로 變更함.

자료 [34] p.75

첫째, 국내투자면에서 볼 때 그 대다수는 외국자본에 의한 것이며 고유의 미국자본의 국내 투자수준은 아주 낮다. 그러나 포터 자신도 지적하였듯이 국민경제의 참된 발전은 그 나라의 산업, 그 나라의 자본, 기타자원의 존재양식, 그 나라의 혁신과 같이 그 나라 고유의 산업의 자립적 발전력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에 의존한 발전은 마침내 국제경쟁력을 잃어 국민경제의 쇠퇴를 초래하기 쉽다.

둘째, 미국 산업의 투자의 대다수는 해외직접 투자이다. 이에 의해 다국적 기업은 크게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발전은 생산거래의 해외 이전에 의한 본국산업의 공동화(空洞化)나 제품이나 부품의 외국에의 기생적(寄生的)인 생산으로 자국산업의 자율적 발전의 기회를 상실케 하거나 비합리적인 자본운용, 머니 게임(money game)등에 의해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조업, 물질적 생산력을 쇠퇴시키는 것이다.

셋째, 경제의 군사화, 군수산업의 발전이다. 군수품은 결코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여주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생산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군수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재정부담

을 가중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키며 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대시키거나 혹은 국민의 생활 예산을 감축시켜 국민생활을 궁핍화시킨다.

그 결과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이 시사하듯이 산업발전의 주요 요인인 소비시장이 파괴되어 생산 - 소비 - 재생산 - 혁신으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가치연쇄가 시장요인 때문에 중단되고 전체로서의 산업발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포터도 “미국 기업이 …… 진귀한 방위나 우주개발의 수요에 집착하고 있을 때 일본은 폭넓은 용용분야에서 상당한 리드(lead)를 획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31] p.526).

이처럼 군수산업은 국가재정의 힘을 빌려 일시적으로 번영하기는 하나 그것은 소비수요, 국민생활을 악화시켜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가치연쇄 전체적인 산업 발전의 메커니즘을 파괴시켜 마침내 산업전체를 쇠퇴시키게 된다.

넷째, 포터는 관련·지원산업군의 문제와 관련하여 안이한 수직적 관계가 생겨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이 약화되고 기업의 전략이나 구조나 경쟁 측면에서는 경영자(관리자)나 종업원의 질의 저하, 투자가의 투기 지향성이나 기업의 단기성과지향성의 강화, 합병이나 제휴의 횡행, 비관련 다각화의 진전, 경쟁의 퇴조, 부품의 외국의존, 보호주의의 강화 등에 의해 혁신이나 질적향상의 속도가 저하된 점을 들고 있다([31] p.527-530).

안이한 수직적 관계나 산업군의 축소는 인수·합병(M&A)에서 비롯되는 산업독점화의 진전의 결과이며 경영자(관리자)등의 질의 저하는 독점기업에 있어서의 대기업병, 경영조직의 경직화, 관료주의화의 결과이며 투자가의 투기지향성이나 기업의 단기성과지향성, 비관련다각화의 진전은 산업면에서 보면 아무런 특징도 없는 것으로서 생산·판매 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은 저버리고 자본에 대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의 본성(本性)에 유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산업의 쇠퇴의 원인은 산업의 트러스트화나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이나 시장의 독점적 지배의 강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34] p.76).

### 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산업혁명에서 구미제국에 크게 뒤졌고 또한 제 2차 세계대전후에는 전화(戰禍)에 의한 산업파괴와 패전으로 거의 영(零 zero)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후의 발전은 눈부신바 있어 오늘날엔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일본산업의 발전요인을 포터이론을 빌어 검토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34] p.77-81).

① 요소조건 : 포터에 의하면 일본의 요소조건을 평가하는 출발점은 천연자원의 결핍인데

이러한 천연자원의 열위가 오히려 많은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창조하며 질적향상(grade-up)을 가져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한다. 또한 인적자원은 교육에 의해 육성되어 많은 숙련된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특히 기업의 종업원과 관리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업내 교육이나 훈련이 시행되어 그것은 종업원의 승진에 있어 불가결의 요건이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창출하였다([31] p.395 - 397).

포터는 일본의 인적자원 분야에서의 요소적 우위성이 생산이나 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창조하고 질적향상을 가져와 천연자원의 결핍이라는 열위(劣位)를 극복하여 혁신을 촉진시켰다고 보고 있다. 생산기술이 아주 고도화하여 생산에 있어서의 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신기술의 개발이나 그 응용여하가 기업 발전상 중요한 조건이 되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의 고도화는 산업발전에 있어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혁명의 시대라는 현대에 일본의 인적자원의 높은 질과 창조성이 일본의 산업을 발전시킨 요소 조건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자(관리노동자포함)가 산업발전에 대해 큰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되면 맨 먼저 불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합리화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영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34] p.78).

또한 포터는 일본의 급속한 발전을 뒷받침한 요소조건으로서 자본의 높은 축적율을 들고 있다. 즉 “자본은 아주 높은 저축률에 의해 급속히 축적되었다. 저축의 관습은 부분적으로는 일본 문화에 고유한 것이기는 하나, …… 국가정책 예컨대 사회보장의 미비, 낮은 주택재고, 금융투자 정책(재정투융자), 자본의 해외유출저지의 장려 등의 반영결과 이기도 했다. 이러한 높은 저축률에 뒷받침되어 일본은 많은 자본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31] p.395)

기업이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자본의 동기가 기업경영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면에서 보면 자본의 높은 축적율(그 바탕에는 고이윤이 있다)이 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됨은 당연하다. 문제는 자본의 높은 축적율이 어떻게 달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② 수요조건 : 포터에 의하면 일본의 수요조건의 특징은 좁은 국토 내에 1억 2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아주 많은 기업이 비교적 좁은 공간 속에서 활동한다는데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인은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비교적 동질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은 구매력을 집중시키고 기업규모의 확대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성되는 기업간 경쟁이나 강한 모방지향성에 의해 하나의 대기업이 신제품

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면 곧 다른 기업이 뒤따르고 신제품의 급격한 침투와 호황속에서 기업은 새로운 모델이나 특징을 가진 제품의 제공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31] p.401-402).

또한 한정된 주거공간 때문에 간편성(compact) 휴대성(portable), 무소음, 다기능 제품에 대한 수요지향성이 강하고 아주 많은 다양한 중소영세기업이 이에 대응함으로서 전체로서 제품의 다종다양화에 의한 시장의 초세분화가 진전되고 이것이 기업의 유연한(flexible)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탄력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한다([31] p.404).

이는 곧 경쟁을 매개로 한 신제품 개발, 시장의 다양화, 세분화와 이에 대응하는 유연한 생산체제의 존재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포터는 일본에서의 헌법상의 제약으로 군수산업의 발전이 억제되어 방위제품시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민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고 지적한다(ibid. p.405).

③ 관련·지원산업 : 포터는 일본의 경쟁력의 강함을 관련·지원산업의 존재양식에서 찾고 있고 일본의 기업은 대다수가 관련산업에 다각화하고 있고 그 결과 기술이 효율적으로 계승되어 그것이 질적향상을 촉진하고 있고 또한 일본의 대기업은 많은 중소하도급 기업을 네트워크화하여 상호간에 장기간에 걸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보도 자유로이 수수(授受)되며 서비스도 좋으며 변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1] p.407).

포터는 이러한 기업간 관계를 기업군(cluster)으로 부르고 이러한 산업의 시스템화, 생산적인 관련의 긴밀화가 전체적인 효율을 높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부품의 생산으로부터 완성품의 생산에 이르는 시스템화는 구미의 기업의 경우에는 트러스트(trust)화 되어 한 기업의 내부생산체제로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각각 독립기업이 상호관련하여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우보다 시스템화의 정도는 더 강해서 일본의 경우가 더 잘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업간 관련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특징은 다른데서 찾아야 할 것이며([34] p.79) 그것은 모기업과 하도급기업간의 지배·종속관계를 통한 하도급기업에의 회생전가, 하도급기업의 수탈체제는 현대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산업의 특징으로서 이것과 일본의 저임금구조가 일본의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생기게 하고 있고 이것이 자본의 높은 축적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34] p.79-80).

④ 경영구조 : 포터는 일본기업의 경영구조의 특징으로서 “개인의 집단에의 협력과 복종이 규범이 되어 있고 직능간의 조정이 쉽고 계층적인 종단적(縱斷的)구조와는 별도로 프로젝트 팀(QC 서클포함)의 형성이 수시로 이루어져([31] p.408-409) 노사관계는 협조적이어서 파업은 거의 없고 노사는 서로 존경하고 …… 조합과 기업은 협력적인 태도의 유지”(ibid. p.405)라는 면에서 강한 경쟁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포터의 지적은 대체로 수긍되지만 문제는 노사 즉 작업자와 관리자간의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저임금, 장시간, 과밀 노동 하에서도 파업·노동조건의 강력한 개선운동이 전개되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하고 자본에 의한 노동자 수탈을 하게끔 방관하는 노동조합의 대응 방식에 있으며 이것이 자본의 고도축적을 쉽게 하여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되고 있다([34] p.80-81).

### ⑤ 한국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

먼저 요소 조건면에서 볼 때 천연자원조건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위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인적자원면에서는 요소적 우위성이 있다. 또한 교육에 의한 인적자원의 질과 창조성도 높다. 자본의 축적율도 비교적 높은 셈이다. 그러나 급격한 고도성장정책과 기업의 확대의욕의 강화로 투자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외자의존도가 매우 높다.

수요조건면에서 볼 때 내수조건은 그다지 좋지 않으나 외수조건은 수출지향적 전략의 전개로 어느 정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였다. 관련·지원산업면에서 보면 산업군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자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상 취약성이 있다.

경영구조면에서 보면 경제력의 집중으로 소유자지배가 일반화되고 기업을 봉토(封土)로 여기는 재벌총수의 무모한 전횡과 야망에 가득찬 전근대적경영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며([37] p.26) 혹은 그 원인을 전 국민에 만연된 도덕적해이(moral hazard)로 보고 있는데 이의 발생메커니즘과 사례는 <표 30> 및 <표 31>과 같다([37] p.3).

기업과 관련하여 볼 때 기업성장의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중요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자(관리자)의 경영관리 방식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경제 체제라 하듯이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체제이다.

〈표 30〉 도덕적 해이의 발생메커니즘

1. 요인
① 정보보유량의 차이
② 법·제도의 미비
③ 보상체계 미흡
④ 책임의식 결여
2. 형태
① 사익추구
② 책임·신의·성실·의무소홀
③ 집단이기주의
3. 결과
① 이해당사자 피해
② 불특정다수의 손해
③ 도덕적해이 증가
④ 사회적 신뢰 저하

자료 : [37] p.1

〈표 31〉 도덕적 해이의 사례와 해결방안

부문	주요사례	해결방안
정부·공공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낭비와 부실투성의 국채사업</li> <li>관료들의 복지부동</li> <li>회계년말에 남은 예산일괄 집행</li> <li>산하기관 낙하산 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상필벌의 인센티브제 강화</li> <li>정보공개법 제정</li> </ul>
국회·정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의 이익보다 당리 당략 우선에 따른 개혁입법처리 지연</li> <li>세비인상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부의 입법권 제한</li> <li>시민단체의 감시 강화</li> <li>국민 소환제도 가동</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주주등 주주의 이익침해</li> <li>협조용자에 의한 자구노력 소홀</li> <li>기업주의 고의 부도·재산은닉</li> <li>불투명한 기업경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정보의 투명화</li> <li>부실경영에 대한 제재</li> <li>채무불이행법의 강화</li> </ul>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소홀</li> <li>과도한 퇴직금 지급</li> <li>퇴출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조직적 반발</li> <li>부실금융기관의 고금리 경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개입과 보험가격 역할 축소</li> </ul>
사회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지도층의 의무이행 부족</li> <li>실업수당 수령자의 재취업 노력 소홀</li> <li>공익 저해하는 낭비현상</li> <li>전세 임대주의 전세금 반환 소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신뢰 파괴자에 대한 제재 가중</li> <li>인센티브제도 확대</li> <li>상생과 상사체계구축</li> </ul>

자료 : [37] p. 3

### (3) 한국기업의 흥망과 정부의 역할

앞에서 보았듯이 포터는 6가지의 기업발전요인 중에서 정부의 역할을 추가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정부의 산업재정정책도 미국경제쇠퇴의 원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31] p.531)

“미국정부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고 경쟁기업간의 단합이나 제휴 등에는 협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장벽이나 특정의 협정으로 대응하고 또한 거대한 재정적자가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흡수하여 이 때문에 산업에의 투자율이 저하하고, 정부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산업을 제외한 일반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산업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자본이나 자원의 흐름을 특정영역으로 유도하고 외국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해외기술라이센스(license)의 취득을 교섭하고 환율을 인하하여 왔다”([31] p.414)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이 대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앞서 살펴 본 한국기업의 발달에 미루어 부정할 수는 없다.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랜드연구소의 고문인 찰스올프는 그 주된 원인은 일본식 발전모델 후일 아시아국가들에 전파되어 아시아발전모델로도 불리는 경제성장전략 때문이라 하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과 은행들이 단기차입금을 장기투자와 대출에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모델의 이면에는 정설과 배타성, 부패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이 있어 이것이 이 지역의 사회와 정치에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하였다([35] p.12).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도 역시 아시아모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관료 중심적 개발정책에 입각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첫째, 경제개발계획에 의거 고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전략산업 내지 수출주도형 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여 왔으며 국내경제 여건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은 소수의 기업집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지원의 혜택은 기업집단에 귀속할 수밖에 없었고.

둘째, 부실기업 내지 도산 기업의 처리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집단의 규모팽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도산시 채무불이행과 실업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이를 기업집단에 인수시키는 과정에서 장기저리종자돈(Seed Money)의 제공, 대출원금상환유예, 범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등의 혜택을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36] p.29).

이렇게 볼 때 한국기업 특히 대기업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한 정부정책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으며 1960년대의 3공의 경제정책이 명치유신기의 일본의 정상(政商)자본주의적정책과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는 면에서 아시아적 모델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의 누적이 오늘의 경제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상자본주의하의 개인기업가인 정상(政商)은 정당이나 관료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상인인데 이들은 미국의 금박시대(gilded age)에 배출된 도적귀족(robbn baron)과 그 성격이 비슷하였다([38] p.45). 당시의 일본의 명치정부는 다른 후진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봉건적 정치 체제에 대체된 정부이긴 하였으나 다분히 절대주의적 특성을 잔존시켰던 중상주의적 정부이었고 따라서 정부는 「부국강병」의 스로건하에 관영기업의 경영과 불하, 보호관세, 민간기업에의 보조금, 특권의 제공 기타방법에 의해 자본주의 산업을 보호·육성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정상을 생기게 한 온상이 되었고([38] p.45) 이를 정상의 기업조직이 점차 확대되고 조직화되어 재벌로 성장했다.(ibld p.48)

#### (4) 한국기업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

그러면 한국기업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한 요인은 어느 것일까? 포터가 제시한 여러 요인 중 그것은 기회, 정부의 역할 그리고 경영전략과 구조 및 경쟁의 3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회는 정부관료에 의한 수출 지향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입안·기획과정에서 중점적인 산업정책방향이 결정되며 특정산업부문에의 진입여부는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규제되므로 이 또한 정부의 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회의 포착은 기업의 전략적 계획 과정보다는 정부 계획입안당국과의 교섭과정에서 파악되며 이에 뒤따르는 지원특혜금융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정경유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 (1) 정부의 역할 요인

기업의 초기성장과정에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간의 역할이 아주 크다. 미국 경제사학자인 거센크론(Gersntenkron, A)은 19세기 유럽의 공업화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정부·금융·기업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69] p.8)

① 영국형-영국의 특징은 자유방임이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한다. 기업은 보통 장기자금은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운영자금은 은행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일찍부터 성장했고 주식거래에 있어서 회계투명성이나 공시제도가 발달했다. 은행 또한 기업부문과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냉정하

다. 기업운영이 신통치 않으면 즉시 자금을 회수한다.

② 독일형-19세기중반에서야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작한 독일은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발달 했지만 영국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었다. 기업들이 낙후되어 공업화에 필요한 대규모자본을 동원할 능력이 없으므로 은행이 주도했다. 따라서 독일은행은 조달·대여한 자금이 잘 쓰이는지 살피기 위해 이사나 감사를 기업에 파견해서 대주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③ 러시아형-19세기말에야 러시아는 공업화대열에 참여했다. 거센크론에 의하면 러시아의 경우 신용(credit)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국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기업을 육성했고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동원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분배했다. 신용 없는 금융기관에 맡겨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보증하고 자본을 동원했다.

한국을 비롯해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형과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주도는 경제력과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연줄자본주의(chrony capitalism)의 특징인 정경유착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정치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다보면 부실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정경간에 진밀한 협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강의 기적'이나 '동아시아의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록 영국형의 정부-금융-기업간관계를 가져 자유방임(Laissez faire)을 지향해온 영국과 미국의 자유경제하에서도 정부의 간섭과 관여는 있기 마련이었다([70] p.134)

정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 갈등을 권위에 의해 조정하여 배분결정을 하는 사회적·정치적 제도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종의 사회비용으로서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해 지출된다. 그런데 정경유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에리트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 엘리트에게 비공식비용(informal cost)인 뇌물을 제공하여 배분결정을 왜곡시키려 하기 쉽다. <표 32>는 근간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 사건을 간추린 것이다([39] p.A3).

과거 6공시절의 노태우정권하에서는 국책사업마다 5~10%의 특정사업 수주대가를 받았고 ([40] p.3) 노대통령의 수천여억원에 이르는 부정축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공여로 기소된 현대, LG, 삼성, 동아, 대우, 롯데([42] p.1)를 위시한 재벌그룹총수 24명 대부분은 불구 속 또는 약식 기소되었다([41] p.1).

그러면 이와 같이 제공된 자금은 기업에서 어떻게 조성되었을까? 그것은 대부분 변칙회계

〈표 32〉 정경유착에 따른 자금관련사건

1.	청 구	청구회장이 비자금으로 빼돌린 공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사건
2.	기 아	기아그룹계열사인 (주)기산의 사장을 지낸 현역의원이 1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제공한 사건
3.	한 국 통 신	한국통신실장급간부가 안기부간부의 종용으로 1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사건
4.	부 동 산 신 탁 사 건	경성그룹이 특혜지원금 759억원을 받고자 10억 7천만원의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건
5.	도로공사	도로공사 전사장이 고속도로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 2천 5백만원을 수뢰한 사건
6.	컴 퓨 터 게 임 사 건	한국컴퓨터공업중앙회가 마음대로 컴퓨터프로그램 심의 위원을 선정·해임할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혁연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한 사건

(자료 : [39] p.A3)

처리(매출액누락, 비용과다계상)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의 형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이 기업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올바르게 활용되었다면 기업의 요소중 자금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을 것이다. 1995년 현재의 30대 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은 〈표 21〉에서 보았듯이 20.1%에 지나지 않는다([28] p.9).

## (2) 경영전략요인

기업의 성장·발달 및 쇠퇴여부는 궁극적으로 환경적응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주체인 경영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기업의 의사결정 매커니즘인 이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한 주원인은 재벌총수의 무모한 전횡과 야망에 있다고 미국의 위싱톤·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43] p.26).

“기업을 봉토(封土)로 여기면서 전횡(專橫)을 부리는 한국재벌총수들의 전근대적 경영이 한국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집권적 의사결정은 무조건 비합리적인 것일까? 미국의 전력 및 전자업체인 GE의 잭·F·웰치 회장이나 컴퓨터 회사 IBM의 루이스·거스터회장등 세계적인 최고경영자(CEO)등도 독단경영을 한다(ditto). 그런데 왜 한국의 재벌총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의 기업집단의 소유자배구조의 특징은 소유집중도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있다([44] p.190-191). 이는 한국기업집단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현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서 이는 소유자 가족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인 회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비난받는 까닭은 소유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의의 내지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을 개인 또는 소유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물화(私物化) 내지 사금고화(私金庫化)하는 천민자본주의적 탐욕에 사로잡힌 몰윤리적인 소유경영자 행동 때문이다. <표 33>은 이들 소유경영자의 부정적인 경영관행을 예시한 것이다.

<표 33> 소유경영자의 부정적 경영관행의 예

①	충북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유경영자는 610억원의 금융사고를 이르켜 미국으로 도주했다([45] p.1).
②	소액주주의 이익은 아랑곳 않고 총 2천 4백억원의 회사돈을 뇌물로 갖다 바친 1인지배하의 30대 재벌총수(소유경영자)의 경영관행([58] p.4)
③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실명제를 회피하기 위해 내부정보를 훔쳐 주가를 올려 차명으로 처분하고 주가가 내리면 본인명의로 매입하여 매수·합병(M&A)방어를 하는 증권거래상의 조작행위([46] p.3)
④	극동그룹회장은 부실계열사인 국제종합건설에 계열사인 동서증권의 1천 여억원의 자금의 불법지원으로 기소되었다([48] p.19).
⑤	리비아대수로건설로 이미지가 높아진 동아건설의 전회장은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하여 거액을 해외에 유출했다([49] p.23).
⑥	신화그룹 회장은 회계조작으로 1,700여억원을 대출받아 구속기소 되었다 ([50] p.23).
⑦	대농회장은 탈세 및 재산해외도피로 출국금지되고 가족이 자금추적을 받았다([51] p.A15).
⑧	장은증권의 퇴직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전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됐다(ditto)
⑨	10여개 재벌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사거나 국내로 반입해 환투기를 하다 다시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52] p.3).

### (5) 한국기업의 발전단계의 분석

브레이크등은 기업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었었다([47] pp.13-18).

- ① 기업가적 기업의 단계
- ② 제도적 기업의 단계
- ③ 동태적 기업의 단계

포터는 앞서 본바와 같은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라는 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한 다음 각국이 당시까지 도달한 경제적 발전 단계의 특징의 차이를 기준으로 경제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나누고 있다([34] p.70-72).

① 요소추진단계 : 개발도상국등 다이아몬드중에서 요소조건만이 유일의 우위성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국가로서 그 특징은 제품의 가격이 경쟁의 기반이 되어 있고 세계경제의 경기나 환율에 민감하며 요소우위도 상실하기 쉬우며 또한 급속히 이행하는 산업의 선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취약하며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산업적 기반도 약하다([31] p.546-548).

② 투자추진단계 : 이 단계의 특징은 국가나 기업의 투자 의욕이 높고 경쟁기업의 범위는 요소추진 단계보다 훨씬 광범하며 보다 첨단적인 산업(단 국제적선도기업에 비할 때 1세대정도 뒤져 있다)이나 산업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련·지원산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발전되지 않아 생산은 거의 외국의 기술이나 설비에 의존하거나 혹은 외국의 부품에 입각하여 수행되며 그 결과 혁신의 속도는 낫다 포터는 이 단계에 이른 나라로서 한국을 들고 있다([31] p.541-548).

이 단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선진국 기업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외국에의 기생적생산을 하는 외국의존형 산업구조의 형성이나 다국적기업의 발전은 마침내 산업의 발전력을 저하시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쉬움을 시사해주고 있다.

③ 혁신추진단계 : 이 단계에 있는 국가는 일본인데 그 특징은 강력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다이아몬드의 모든 요인이 광범한 산업에서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여 경쟁에서 성공한 산업이나 산업분야의 조합은 폭이 넓으며 이에 의해 산업의 질적향상이 진행되고 또한 요소코스트 우위 대신에 선택적 열위가 혁신을 자극하여 제품이나 공정기술을 발전시키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이아몬드시스템이 자기강화력을 가져 가격에 민감하며 그다지 고도화되지 않은 산업분야나 노동집약적분야는 점차 다른 나라의 기업에 지위를 이양하고 기업은 자사의 세계 전략에 따라 경쟁을 하며 국제마케팅이나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고 또한 국제화된 기업은 정부의 지도를 수용하지 않게 되고 정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31] p.552-556).

④ 부(富)추진 단계 : 이 단계에 이른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 있는데 이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기업이 내부의 요구를 넘어서는 현금흐름 내지 초과잉자본<sup>21)</sup>를 가지고 있다 는 점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하여 합병 매수가 성행하고 또한 해외투자의 성격은 순수한 금융 투자로 변하고 경쟁우위를 가진 해외기업의 매수도 하지만 매수기업은 해외의 경영진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기업은 국제적인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잊게 되 어 마침내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고 한다([31] p.556).

브레이크 등이 제시한 기업진화론적 모델에 입각할 때 현재 한국산업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재벌기업은 아직도 기업가적 기업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포터의 모델에 의하면 저임금 노동력의 요소우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기를 지나 투자추진단계에서 이제 혁신추진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VII. 맷는 말

이상 근대화기 이후의 한국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근대화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의 창의적 노력의 결과로서 창업되고 효율적으로 경영되어 상위권기업으로 성장한 장수기업이 있는가 하면 창업후 수년내에 몰락한 기업도 많다.

1997년 현재 상위 30대 기업을 필두로 한 약 370만개의 기업이 소위 IMF 시대를 맞아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서 다시 재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원인을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의 와생적요인(헤지펀드:hedge fund)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결국 기업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경영자의 부실한 전략적 의사결정 때문이 아닐까?

이는 다시 말해 전략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사이몬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전제가 없으면 결론이 없다고 하고 의사결정전제를 가치전제와 사실전제로 나누고 있다([54] p.13). 따라서 의사결정은 사실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아울 러 가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정이건 그것은 타인(광의로는 공중)과 관련을 갖지 않 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은 여건으로 다루는 윤리적 전제에서 비롯되어 야 한다고 한다(ibid. p.14).

---

21) 자본축적이 국내외의 설비투자를 초과하는 자본축적부분이다([34] p.84 주 7)

라이시는 미국산업의 정체의 한 원인이 바로 이기주의의 만연, 즉 도덕성의 결여에 있음을 밝혔었고([55], p.166 및 p.239, [56] pp.104-1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간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견해가 괴력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Cf.[37] p.1 및 p.3).

한국기업이 이대로 좌초해야 되겠는가? 경쟁력을 갖추어 다시 재도약하려면 구두선(口頭禪, lip Service)이 아니라 실천지침이 되는 이상형(ideal type)에 대한 신념인 경영이념을 확립하고 올바른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한다. 포터는 다음과 같이 개도국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57]p.9).

- ① 목표와 관념을 바꿔라
- ② 산업별로 특성에 맞는 경쟁전략을 수립하라
- ③ 기업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 ④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문을 관리하라
- ⑤ 기회주의에서 전략적 사고로 전환하라
- ⑥ 장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라
- ⑦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 參 考 文 獻

- [1] 財政經濟院統計局, (1997), 事業體基礎統計 調査, 서울 財經院統計局.
- [2] 東亞日報, 1995년 11월 17일자
- [3] 李建憲(1997), “湖巖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위치,”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 15 집, 1997, 12.
- [4] 黃明水(1980), “한국기업의 발달(1910-1945),” 단국대학교논문집, 제14집 인문, 사회과학편, 1980, 11.
- [5] 한영우(1997), 다시 찾은 우리 역사, 서울, 경세원.
- [6] 趙璣濬(1971), 한국기업가사연구, 서울, 민중서판.
- [7] 金元鉢,(1985) 經營學史, 서울, 경문사.
- [8] 山本安次郎(1975), 經營學研究方法論, 東京, 丸善株式會社.
- [9] 趙璣濬(1973),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0] 韓治勵(1970),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서울, 一潮閣.

- [11] 韓祐勵(1970), *개항기상업구조의 변천*,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 [12] 金宗炫,(1992), *공업화와 기업가활동*, 비교사적연구, 서울, 경문사.
- [13] 東亞日報, 1995년 1월 19일자
- [14] 東亞日報, 1995년 10월 7일자.
- [15] 매일경제신문, 1992년 11월 21일자
- [16] 朝鮮總督府(1956), 朝鮮の保護及び併合, 改編復刊本, 東京, 財團法人友邦協會.
- [17] 朴慶植(1973),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上), 東京, 青木書店.
- [18] 金元銖(1998), “한국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한국경영연구소, 경영논집, 32-1.
- [19] 서울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 [20] 서울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
- [21] 黃明水(1997), “湖巖의 경영이념의 재조명,”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5집, 12월.
- [22] 중앙일보경제 제2부(1996), 재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30대재벌 그룹의 인맥분석, 서울, 중앙일보사.
- [23] 백일,(1994), *한국재벌구조교체안연구*, 서울, 백산서당.
- [24] 안충식(1995), “대옹체약윤영환의 생애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1집, 12월.
- [25] 東亞日報, 1997년 10월 7일자.
- [26] 郭秀一(1987), “한국기업의 성장과 변신,”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논집, 21-3.
- [27] 中央日報, 1997년 8월 8일자.
- [28] 매일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
- [29] 中央日報, 1997년 10월 9일자.
- [30] 孔柄湜(1993), *한국기업홍망사*, 서울, 명진출판사.
- [31]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THE FREE PRESS.
- [32] PORTER M E(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THE FREE PRESS.
- [33] KOTLER. P(1997),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NTROL, 9TH ED., ENGLEWOOD CLIFFS, N

- J.PRENTICE-HALI. INC.
- [34] 井上廣編,(1994) 現代企業の經營と戰略, 東京, 法律文化社.
- [35] 中央日報, 1998년 2월 9일자.
- [36] 소일섭,(1986),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37] 매일경제신문, 1998년 7월 23일자.
- [38] 小原敬士(1971), BIG BUSINESS 論, 東京, 丸善 주식회사.
- [39] 東亞日報, 1998년 7월 29일자.
- [40] 한겨례신문, 1995년 1월 21일자.
- [41] 서울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
- [42] 조선일보, 1995년 11월 8일자.
- [43] 東亞日報, 1998년 4월 10일자.
- [44] 정광선,편(1996),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합체제, 서울,서울대경영대증권금융연구소.
- [45]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
- [46] 서울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
- [47] BLAKE R R, W E AVIS & J S MOUTON(1964). CORPORATE DARWINISM.  
HOUSTON, TEXAS, GULF PUBLISHING CO.
- [48] 東亞日報, 1998년 5월 20일자.
- [49] 한겨례신문, 1998년 7월 7일자.
- [50] 한겨례신문, 1998년 3월 10일자.
- [51] 東亞日報, 1998년 7월 13일자.
- [52] 東亞日報, 1998년 6월 16일자.
- [53] SIMON, H.A.(1993), REASON IN HUMAN AFFAIRS, STANFORD  
UNIVERSITY, PRESS..
- [54] 野中郁次郎(1990), 知識創造の經營-日本企業のEPISTEMOLOGY,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55] REICH, R.B.(1983), THE NEXT AMERICAN FRONTIERS, NEW YORK, TIMES  
BOOKS.
- [56] 金元鉢(1995), 經營倫理論, 서울大出版部.
- [57] 매일경제신문, 1998년 7월 29일자.
- [58] 東亞日報, 1995년 11월 23일자.

- [59] 매일경제신문, 1998년 8월 6일자.
- [60] 孔柄湜(1995),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서울, 창해.
- [61] 東亞日報, 1995년 2월 8일자.
- [62] 高承禧(1995), “동아건설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이념,”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1집, 12월.
- [63] 黃明水(1996), “大山慎鑑虎의 생애와 경영이념,”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2집, 증보판, 8월.
- [64] 李漢九(1995), “한진그룹형성과정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1집 12월.
- [65] 金聖壽(1996), “諱石의 생애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1집, 12월.
- [66] 趙璣濬(1996), “湖巖의 삶의 철학과 기업의 歷程,”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5집, 11월.
- [67] 금호뉴스(1996), 서울, NEXTEL, INC.
- [68] 金聖壽(1997),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의 호암의 산업적기여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5집, 11월
- [69] 매일경제신문, 1998년 7월 6일자
- [70] 中川敬一郎(1981) 比較經營史序說 , 東京, 東京大出版會
- [71] 朴光緒(1995) “중외제약의 성장과 창업이념,”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12월
- [72]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 [73] 金聖壽(1996) “교보생명보험의 성장과 발전-교보생명의 경영사적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2집, 증보판, 8월